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

걱정말고!

보호받고!

신고하고!

당신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비밀은 보장 신변은 보호 용기는 보상

인터넷 신고	방문·우편 신고	상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 1398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더 알아보기

- 02 꿈이 영그는 현장**
충남 온양한울중학교
학교 내 비속어·신조어·욕설 OUT!
비결은 '한글사랑 이꿈학교'
- 06 네 꿈을 펼쳐라**
가평 설악중학교 봉산탈춤동아리
세계를 들썩이는 우리 흥을 제대로~
- 38 교육웹툰**
2023년 온라인 학교가 찾아갑니다
- 54 일상의 심포**
걸어서 전주한옥마을 한 바퀴



행복한 교육

10

vol.483 2022 OCTOBER

COVER STORY

가평 설악중학교(교장 신순옥)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의 명맥을 잇기 위해 동아리 '봉산탈춤반'을 만들어 후배에서 후배로 전통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22년째 학생들이 지켜온 '봉산탈춤'은 학교의 자랑이자 설악의 자랑거리다. 적, 황, 청색 등 오방색으로 화려하게 만든 한복을 입고 기다란 한삼과 목종탈까지 갖춘 봉산탈춤반이 운동장에서 대형 연습을 하고 있다.

발행일 2022년 10월 1일
발행처 교육부
편집인 대변인 김천홍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신광수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김하진
편집장 이순이
기자 한주희, (객원)김혜진, 서지영, 안광석, 이경화
사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춘
웹진 www.happyedu.moe.go.kr
제보 eduzine21@gmail.com
전화 02-2271-0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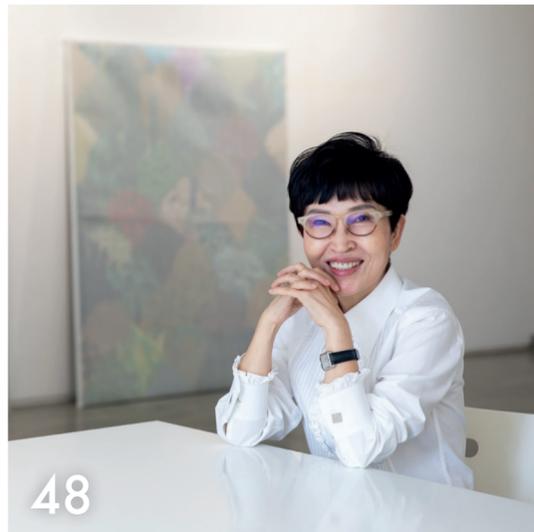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2



10



48

특별기획

디지털 대전환 시대, 100만 인재 양성

20 디지털 인재 양성은 시대의 과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24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국민의 디지털 역량 키운다

28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과 과제

32 AI,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혁명

02 **꿈이 영그는 현장**
 충남 온양한울중학교
 학교 내 비속어·신조어·욕설 OUT! 비결은 '한글사랑 이꿈학교'

06 **네 꿈을 펼쳐라**
 가평 설악중학교 봉산탈춤동아리
 세계를 들썩이는 우리 흥을 제대로~

10 **에듀피플**
 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
 한국문화의 뿌리 '한글', '맑고 향기롭게' 세계로 전파

15 **명예기자 리포트**
 DMZ 평화동행캠프, 남북분단의 현장을 가다 外

36 **정책을 말하다**
 첨단기술 활용한 '실감나는 수업' 함께해요!

38 **교육웹툰**
 2023년 온라인 학교가 찾아갑니다

40 **교육자치시대**
 서울특별시교육청 '온(ON) 세상으로 만나는 국제공동수업'
 외국 친구와 함께 수업... 세계시민역량 키운다

43 **이달의 교육뉴스**
 2022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 外

44 **교육포커스**
 교육복지, 전인적 성장을 돕는 통합지원망

48 **진로직업인**
 아트디렉터_갤러리 마노 정하미 대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일, 아트디렉터의 필수 덕목이죠"

52 **체험! 진로현장**
 새로운 시각문화를 창조하는 기획자, 아트디렉터

54 **일상의 심포**
 걸어서 전주한옥마을 한 바퀴

58 **교실혁명**
 무대가 된 교실, 낭독극 수업

62 **혼자보기 아까워서**
 우리말과 어머니의 가르침 外

64 **독자마당**



54

충남 온양한울중학교

학교 내 비속어·신조어·욕설 OUT! 비결은 '한글사랑 이쁨학교'



‘올바른 한글사용 이쁨학교’는 충청남도교육청이 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 도서관 등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글의 올바른 사용과 한글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온양한울중학교(교장 김문환)는 2021년부터 ‘한글사랑 이쁨학교’로 지정되어 우리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교과목과 접목한 다양한 한글사랑 교육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글_ 편집실

품격 있는 언어문화, 온양한울중이 이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있으면 등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교복도 단정하고 표정도 밝은데 쓰는 언어에는 속어와 욕설이 많이 섞여 있었다.”

김문환 온양한울중 교장은 ‘한글사랑 이쁨학교’ 사업에 지원하게 된 계기를 이같이 밝혔다. 학생들의 일상에서 비속어와 욕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한글의 뜻과 쓰임을 바르게 익히면 좋겠다는 욕심도 덧붙였다고 말한다. 온양한울중은 정규교과와 동아리 활동 등에 한글사랑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연계·추진한 결과, ‘한글사랑 이쁨학교’ 운영 첫해인 2021년에 ‘올바른 한글사용 유공기관 표창’을 받는가 하면 2년 연속 ‘올바른 한글사용 이쁨학교’로 선정되면서 지속적인 한글사랑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한글영상교육’, ‘우리말 으뜸이 활동’, ‘우리말 엽서 만들기’, ‘한글 포스터 및 만화 그리기’ 등이 있다. 먼저 ‘한글영상교육’은 1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제공받은 ‘붓으로 만나는 한글’이라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판본체, 궁서체, 민체 등 다양한 글자꼴에 대해 알아보고 한글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는 언어인지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글영상교육’과 연결해서 ‘올바른 우리말 사용 실천서약’과 ‘우리말 엽서 만들기’를 진행한다.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체험활동을 구성해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낸 점이 특징이다. 신은재(1학년) 학생은 “영상을 보면서 한글이 예쁘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그리고 우리말 사용 실천서약을 쓴 뒤부터는 친구들과도 외래어나 비속어보다는 순우리말을 찾아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수업 이후 실제로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 말한다.

‘우리말 으뜸이 활동’은 학년별 모든 학급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꼽힌다. 박성병 교감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매월 학급에서 언어사용태도가 눈에 띄게 좋아진 학생을 학급 친구들이 추천하고 선정해서

1 2년째 ‘한글사랑 이쁨학교’를 운영하는 온양한울중학교
23 다양한 글자꼴을 익히며 한글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인지 배우는 학생들





상점(3점)과 함께 소정의 매점이용권을 선물로 준다. 상점이나 선물이 크진 않지만 ‘우리말 으뜸이’가 되기 위해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김은우(2학년) 학생은 “우리말 으뜸이 활동 때문에 반 친구들이 교실에서도 비속어, 외래어를 안 쓰려고 노력한다. 나도 우리말 으뜸이로 선정됐을 땐 정말 뿌듯했고 욕을 쓰는 친구들에게 고운 말을 쓰자, 한글을 아끼자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됐다.”라는 선정 소감을 남겼다.

이외에도 ‘한글 포스터’는 미술교과 시간에, ‘만화 그리기’는 동아리 시간에, ‘한글사랑코딩과 UCC’는 정보교과 시간에 한글사랑 교육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 미술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여다감 교사는 “한글사랑과 관련된 주제로 미술 수업을 계획했고 수업 중에도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독려했다. 1·2차시는 한글과 관련된 단어, 문장, 이미지 조사와 토론, 마인드맵 구상 등의 모듈별 토론수업으로, 3차시부터는 개인별 아이디어 구상과 스케치로 진행했다. 학생들이 한글 창제의

역사와 한글의 문화적 가치에 관해 조사한 자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이나 이를 통해 작품을 완성해가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라면서 이렇게 완성된 학생들의 작품은 오는 10월 충남교육청에서 열리는 ‘우리말 우리글 꿈잔치’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생주도의 등갯길 캠페인과 동아리 활동

교내 동아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한글사랑 활동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글사랑 동아리’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등갯길 캠페인’이나 ‘독서토론 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우리말 티셔츠 만들기’ 활동 역시 교내에 새로운 언어문화를 일으키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이다.

등갯길 캠페인은 한글사랑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여 명이 주축이 되어서 매월 첫째 주 등교 시간에 펼치는 활동이다. ‘욕하지 않기’, ‘말은 마음의 거울’, ‘배려하는 말을 합시다!’, ‘우리말을 지켜요!’ 등을 적은 팻말을 들고 입구에서 친구들을 맞이한다. 등갯길 캠페인에 다수 참여한 유정원(3학년) 학생은 “캠페인이나 동아리 활동 전에는 복도에서 친구들이 모여 대화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등갯길 캠페인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계속 접하다 보니 친구들도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인다.”라면서 “열심히 활동한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한다.

독서토론 동아리 학생들 역시 한글사랑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김유정 작가의 작품을 읽고 작품 속에서 고유어나 향토적인 단어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독서토론 활동을 확장해서 작품 속 자신이 좋아하는 문구나 문장을 직접 티셔츠에 그리는 ‘우리말 티셔츠’를 제작하기도 했다.

“독서토론 동아리에서 한글사랑 동아리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친구들에게도 ‘한글사랑’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걸 자주 상기시켜준다. 순우리말을 찾아서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게 정말 좋다.” 배아현(2학년)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글사랑이 시작됐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또 1학년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수업 중 ‘시가 있는 풍경’ 수업을 한글사랑 수업과 연계해서 학생들 마음속에 남은 시 구절을 머그잔이나 부채에 새겨 넣는 시간도 기획했다.

- 4 한글사랑 동아리 학생들의 등갯길 캠페인
- 5 학생들이 제작한 문집과 머그잔
- 6 한글포스터, 만화그리기, 한글티셔츠 등 학생들의 한글사랑이 가득한 작품을 한데 모아 전시하고 있다.



“시는 그 어떤 문학작품보다도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언어를 익히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머그잔이나 부채에 직접 새겨 작품으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가족들에게 선물하거나 자신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수업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아 교사는 학기 말에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서 문집으로 제작해 나눠줄 계획이다.

학생들 작품 만날 수 있는 ‘한글사랑 전시회’

“학생들의 결과물을 보면 매번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항상 기대 이상의 작품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김 교장은 학생들의 작품들을 한데 모아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만들었다. 작품의 종류는 포스터, 만화, 캘리그래피, 티셔츠, 부채 등 다양하다. 전시장에 담지 못한 작품들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복도 곳곳을 활용해 전시했다. 작품은 오는 11월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오가며 작품을 감상하거나 사진을 찍고 있는 이들의 얼굴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진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한글사랑 교육활동으로 한글에 대한 인식과 언어습관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온양한울중학교.

“향후 한글박물관이나 한글 관련 전시회를 방문하는 체험학습도 계획하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김 교장은 “지속적인 한글사랑 교육을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한글사랑 이끄는 학교’를 운영 중인 각 학교 담당자들을 위한 모임의 장이 마련된다면 운영과정과 성과를 공유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가평 설악중학교 봉산탈춤동아리

세계를 들썩이는 우리 흥을 제대로~

“덩 기덕 쿵 더러러~”

굿거리장단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BTS 덕분이겠지만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설악중학교(교장 신순옥) 봉산탈춤반 굿거리장단이 최고다. 아이돌 춤도 좋지만, 장구장단에 맞춰 탈춤을 출 때 더 신난다는 봉산탈춤반 학생들. 뒤늦게 찾아온 가을 더위 속에서 공연을 준비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고 왔다. 글_ 편집실

“ 봉산탈춤의 역동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팔목중춤은 마치 아이돌의 군무처럼 목중 간 호흡이 잘 맞았을 때 그 멋짐이 폭발한다. ”

탈춤 매력에 퐁당, 지금은 연습 중!

적, 황, 청색 등 오방색으로 화려하게 만든 한복을 입고 기다란 한삼과 목중탈까지 갖춘 봉산탈춤반이 운동장에서 대형 연습을 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여학생들이 탄성을 그치지 않았다. 친구들과 앉아 있던 이은제(3학년) 학생은 “탈춤반 친구들의 즐거운 모습이 좋아서 보는 중이다. 학교에서 공연하는 것을 봤는데 멋졌다.”라고 말했다.

동아리 부원들은 봉산탈춤 이수자인 김은주 강사의 지도로 ‘낙양 동천 이화정’이라는 구호로 악사에게 음악을 요청할 때 하는 불림, 양쪽으로 한 번씩 고개를 떨어뜨렸다가 들어 올리는 고개잡이, 무릎을 90도로 유지한 채 몸쪽으로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다리들기, 발뒤꿈치를 반대편 다리오금에 번갈아 가며 닿았다 놓는 황소걸음, 땅을 박차고 튀어 오르며 팔을 휘젓는 외사위 등 탈춤 기본 동작을 먼저 배운다. 그다음 외사위를 응용한 겹사위, 양사위 동작을 배우고 난 뒤 여럿이 함께 구성하는 팔목중춤, 합동춤과 봉산탈춤의 백미라고 손꼽히는 사자춤까지 익힌다. 한삼을 훌쩍리며 몸 전체를 써서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봉산탈춤의 역동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팔목중춤은 마치 아이돌의 군무처럼 목중 간 호흡이 잘 맞았을 때 그 멋짐이 폭발한다.

모닥불을 뛰어넘는 동작에서 비롯된 봉산탈춤 다리 동작은

1 2 적, 황, 청색 등 오방색으로 화려하게 만든 한복을 입고 기다란 한삼과 목중탈까지 갖춘 봉산탈춤반 아이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하고 있다.



1

2



34 전통문화 전승에 뜻을 모은 지자체의 지원과 학교의 의지, 학생과 학부모의 열정으로 봉산탈춤반은 명실상부한 설악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마치 스쿼트 자세를 하면서 춤을 추는 것과 흡사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윤규열(1학년) 학생은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탈춤 기본 동작을 배우고 대형 연습을 하다 보면 덩달아 체력이 좋아지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김 강사는 지난 2000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산탈춤보존회에서 가평까지 매주 2회씩 왕복하고 있다. 김 강사는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즐겁게 오게 된다. 코로나19 때문에 멈춰 선 동아리도 많은데 계속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전통문화 전승에 뜻을 모은 지자체의 예산지원과 학교의 의지, 학생과 학부모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봉산탈춤반은 명실상부한 설악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22년 전통을 이어온 탈춤반은 여러 경연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2019년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에서 특별상을 받았으며, 최근 재개된 2022년 가평군 청소년종합예술제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준다

봉산탈춤반은 학기 초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새로 부원을 모집하는데 이때 주변 지인, 형제·자매의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형제가 모두 탈춤반 활동을 하는 윤찬열(3학년)·규열(1학년) 형제, 언니들이 모두 탈춤반 출신인 안선영(3학년) 학생 등 탈춤반 활동을 온 가족이 응원하고 있다. 정병인(3학년) 학생은 “동네 형이 탈춤반이 재미있다고 얘기해줘서 눈 딱 감고 1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좋았다. 그 후로 많은 친구에게 탈춤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강사는 “졸업 후에도 탈춤반을 찾아와 주는 선배들이 있어서 동아리가 계속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동아리 운영을 맡은 광중화 교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인 봉산탈춤을 배우고 공연하는 과정에서 협동심을 키우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동아리를 창단하게 되었다.”라며 “다문화 학생이 전교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통문화 동아리인 탈춤반의 역할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탈춤반은 설악중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요즘 봉산탈춤반은 학교 축제 및 마을공동체 공연과 다양한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부원들은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 것도 좋지만 관객 앞에서 펼칠 공연을 더 바라고 있다. 조민기(2학년) 학생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는 공연이 비대면으로 할 때보다 훨씬 재밌다.”라고 말했다. 이상호(3학년) 학생도 “관객 앞에서는 무거운 사자탈을 들고 있어도 실수한 적이 없다.”라며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공연을 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㉔

Mini Talk



김지혜(3학년) 학생

원래 몸으로 익히는 데 오래 걸리는 편이라 운동이든 춤이든 배우는 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봉산탈춤은 탈을 쓰고 춤을 추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힘들지만 동작을 하다 보면 차오르는 흥이 느껴진다. 또 대회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늦게까지 남아 연습하면서 선생님과 대화하고 1, 2학년 동아리 부원들과 더 깊이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박시윤(3학년) 학생

다른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 탈춤반이 공연하는 것을 보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기로 결심했다. 학교 대표로 크고 작은 공연을 하는 동안 다른 친구들이 봉산탈춤에 관심을 두면 굉장히 뿌듯하다. 동생들에게도 탈춤반 활동을 추천하고 싶다. 힘들게 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선영(3학년) 학생

올해 동아리 부장을 맡으면서 지난 공연 영상을 다시 보며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총동문화 축하 공연, 설악제, 가평군 문화예술 축제 등 여러 공연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즐기면서 하면 좋겠다. 설악중학교 하면 탈춤반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봉산탈춤반이 되자!



윤찬열(3학년) 학생

봉산탈춤 덕분에 진로를 고민할 정도로 한국 전통 무용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아침 7시부터 공연을 준비할 때도 있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관객들이랑 함께 호흡하는 것이 너무 좋다. 또 열심히 연습하는 동안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고 큰 상도 함께 받으며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



정병인(3학년) 학생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서 봉산탈춤반에 들게 되었다.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많이 못 했는데 가평문화예술회관 같은 큰 무대에서 관객들이 호응해 주는 것이 마음에 들어올 때 무척 좋다. 또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한 결실로 대회에서 상을 탈 때 뿌듯하다. 우리가 하는 활동이 한국문화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윤규열(1학년) 학생

형이 즐거워하면서 자랑할 때만 해도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직접 배워보니 동작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화려한 옷과 멋진 탈을 쓰고 춤을 추는 것이 정말 멋졌다. 움직이는 것을 즐기는 편이 아닌데 한삼을 휘두르면서 춤을 추는 동안 운동도 되고 공부 스트레스도 날려 버리는 느낌이다.



이강우(1학년) 학생

지금은 팔목증충에서 칠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봉산탈춤이 뭔지도 몰랐다. 봉산탈춤은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다. 학년과 관계없이 모두 친하게 지내면서 신나게 활동할 수 있어서 좋다. 연년생인 동생이 입학하면 봉산탈춤반에 들어오라고 권하고 싶다.



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

한국문화의 뿌리 '한글', '맑고 향기롭게' 세계로 전파

국립한글박물관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문자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14년 10월 9일 한글날 개관했다. 한글을 연구·전시·교육하며 한글문화 확산에 구심점 역할을 해 온 박물관에는 지금까지 약 37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지난 8월 31일 8대 국립한글박물관 관장으로 부임한 김영수(55) 관장을 만나 우리 한글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_ 편집실



“ 한글은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과학적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말 소리를 가장 잘 적을 수 있도록 고안한 새로운 글자입니다. ”

국립한글박물관 건물은 흔히 ‘천지인’이라고 말하는 ‘ㆍ(아래아)’, ‘ㅡ’, ‘ㅣ’ 세 개 글자의 형상을 본떠 설계됐다. 이는 세종이 만든 11개의 모음 글자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들이다. 각각 하늘, 땅, 사람의 형상을 본떠 만든 이 글자들이 한글 창제의 기초가 되었듯이, 한글박물관이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전파하는 초석이 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김영수 관장이 관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학에서 미학을 전공하고, 1995년 임관한 뒤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청사진을 그렸던 그는 소중한 한글을 더욱더 쉽고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다.

Q 8대 국립한글박물관 관장으로 부임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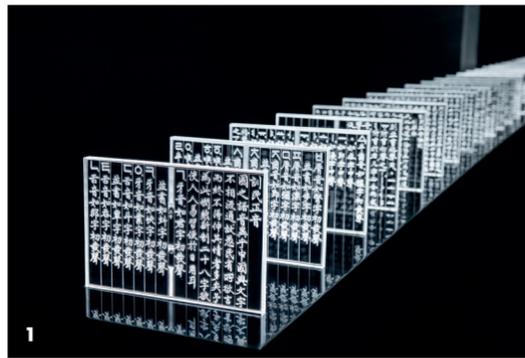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윽한 향은 은은하게 퍼진다.” 중국 북송의 시인 임포의 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글은 태어난 배경부터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자이지만 그 우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맑고 향기롭게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그간 다양한 문화정책을 기획·실행해 오셨는데 ‘한글’은 관장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한글은 한국문화 콘텐츠의 씨줄, 날줄과 같습니다.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K-영화·드라마·음악 등의 콘텐츠는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한글이라는 하나의 뿌리로 직조되어 발전되어 왔습니다. 한글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 문화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을 것이며,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 또한 힘들었을 것입니다.

Q 청소년들에게 한글의 의미와 우수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사용되는 지구상 대부분의 문자는 다른 글자를 빌려와 조금씩 변형시킨 것들입니다. 그러나 한글은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과학적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말 소리를 가장 잘 적을 수 있도록 고안한 새로운 글자입니다. 또한 한글은 문자사에서 가장 발달한 단계의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 만든 음소문자이기 때문에 적은 수의 글자로 다양한 말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글 표기에 사용하는 자음 글자 14자와 모음 글자 10자를 모아쓰면 무려 1만 1,172가지의 글자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모양의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거나 결합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글자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본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1 총 33장으로 이뤄진 훈민정음 각 장을 원형 그대로 아크릴 모형으로 만들어 나열해 놓은 조형물. 우리 글자가 없었던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빛인 한글을 상징한다.
 2 재개관한 상설전시실(사진 제공 = 국립한글박물관)
 3 실감형 어린이 체험전시실 '한글놀이터'(사진 제공 = 국립한글박물관)
 4 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



그중에서도 자음 글자는 소리의 특성이 글자 모양에 반영되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자음 기본 글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ㄱ’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글자 ‘ㅋ’은 소리가 조금 더 세기 때문에 ‘ㄱ’에 획을 더해 만들었습니다.

Q 올해 박물관 상설전시관이 단장됐는데, 전시의 주안점과 주요 유물을 소개해 주세요.

상설전시는 그 박물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얼굴과도 같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책을 떠올리지만, 아쉽게도 박물관에는 <훈민정음> 원본이 소장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설전시는 전시장 전체가 한 권의 <훈민정음>을 상징하도록 기획하여 만들었습니다. ‘나랏말싸미 중국에 달아...’로 익히 알려진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서문에서 발췌한 7개의 문장으로 전시를 구성해서, 세종이 한글을 통해 꿈꿨던 세상이 어떻게 실현돼 왔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정조 임금이 큰외숙모에게 보낸 한글 편지를 모아둔 ‘정조어필한글편지첩’(18세기, 보물)과 김천택이 우리 시조 580여 수를 엮어 만든 <청구영언>(1728년, 보물), 주시경 선생이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쓴 ‘말모이’의 원고(1914년 추정, 보물)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Q 박물관에서는 한글 교육과 연구에도 그간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한글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는 개관한 이래부터 현재까지 약 14만 9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9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한글문화 교육 개발이라는 목표가 교육생들에게 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감형 어린이 체험전시실인 ‘한글놀이터’는 2021년에는 약 6만 2천 명,

2022년(8.31. 기준)에는 약 7만 3천 명이 다녀가는 등 코로나19 상황에도 열띤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훈민정음과 한글 연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훈민정음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제작·배포하기도 하고, 한글 관련 전시의 기초를 마련하는 연구 작업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글 관련 유물도 연구하고 있는데, 한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 유물을 연구하여 <소장자료총서>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총 8권의 책이 발간되었으며 올해는 조선시대 한글 의학서인 <간이벽은방언해>를 대상으로 총서를 준비 중입니다. 아울러, 한글과 한글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에게 흥미로운 주제에 기반한 ‘화요 한글문화 강좌’를 유튜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유·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인기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세요.

한글박물관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가 선호하는 체험 학습 장소로서, 학교 단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박물관 주변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한글의 모양과 소리를 찾아보는 ‘자연 속 한글 탐험’은 유아 단체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박물관 대표 교육 프로그램인 ‘한글 보따리’ 시리즈(1, 2, 3)는 박물관 소장 유물과 교육 과정을 연계하여 개발하였는데 매년 교육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초등학교 단체가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한글 서체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개발한 ‘붓으로 만나는 한글’, ‘반듯하게 쓰는 한글’은 중학교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교육 환경 구축으로 전국의 학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Q 한류 시대 한글의 미래와 국립한글박물관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K-컬처가 국제적인 인기가 있는 것은 희망, 인권, 평화, 환경보호, 미래 등 긍정적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과 한국어의 역할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한글이 문화 창출의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될수록, 이제 세계를 연결하고 세계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한글의 가치를 공유하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우리와 연결하기 위해 다른 문화 및 문자·언어 관련 기관과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간과하기 쉬운 사회일원이 다문화가족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언어로 인해 소외되지 않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글과 한글문화에 대한 교육 및 문화 활동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로 태어나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올해 초 개관 8주년을 맞아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상설전시실을 전면 개편했다. 한글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훈민정음>의 서문을 바탕으로 기획한 전시장에서는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문자 자료부터 현대의 한글 자료까지 191건 1,104점의 한글문화 관련 유물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벽면과 바닥면을 동시에 활용한 실감 영상·인터랙티브북·투명디스플레이 영상 등 다양한 ICT 미디어를 사용해 유물을 보다 새롭고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2016년부터는 한글의 원형, 소리, 형태 등 한글 디자인의 가능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하는 ‘한글실험프로젝트’를 개최해 왔는데, 올해는 10월 한글날을 맞아 근대 한글의 변화상을 다룬 제4회 한글실험프로젝트 ‘근대 한글 연구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글을 둘러싼 근대 시기의 새로운 시도와 한글 자료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시각, 공예, 패션, 음악, 영상 등 4팀(19명)의 디자이너와 작가들이 신작을 선보인다. 2

주요 전시 유물



훈민정음언해본(訓民正音諺解本)
 한문본 <훈민정음>을 우리말로 풀어 쓴 글

한글 금속 활자
 한글 창제 이후에 만든 한글 금속 활자(서울 인사동 출토)



정조한글편지첩(正祖御札帖)
 정조가 큰외숙모에게 한글로 쓴 편지(1755(?)~1798년)

말모이 원고
 주시경과 제자들이 쓴 우리말 사전 원고(1910년대)



송기주타자기
 오늘날 전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타자기(1934년)

FOCUS 01 DMZ 평화동행캠프, 남북분단의 현장을 가다

글 최홍길 명예기자

청소년과 함께하는 DMZ 평화동행캠프가 최근 민통선 안의 ‘캠프 그리브스’ 등지에서 열렸다. 행정안전부 후원, (사)세계평화여성연합 주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30여 명(다문화 가정 학생 14명 포함)의 고등학생이 동참하였다. 이곳은 미2사단 506연대가 머물렀던 곳으로 철수 이후 철거 위기에 몰렸지만, 경기도가 평화통일 체험시설로 리모델링을 한 것이다.

학생들은 남북의 분단 현실을 실감한 듯 차창 밖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고 정주영 회장의 소떼방북과 관련된 통일대교 설명을 듣고 관련 조형물을 살펴보기도 했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민통선 입장 때부터 인솔교사들의 신분증 확인 이후 학생들의 이름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오전에는 골든벨 행사와 주변의 여러 전시장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다. DMZ 영화를 소개하는 기획전시관, 개성 시내와 중립국의 활동상을 보여준 도큐멘타관, 스튜디오 BEQ 등을 둘러보면서 6·25전쟁과 유엔참전국 그리고 휴전협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도 하고,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침대·군복·세면대와 화장실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2천년대 초반에 태어난 학생들은 당시의 모습이 거의 그대로 보존된 막사와 탄약고를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호리 미치코 학

생은 “남북분단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체험해 보고 싶어서 동참하게 되었다.”라며 지뢰의 위험성 때문에 캠프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안전교육 내용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인솔한 이정원 교사는 “30년 전 이곳에서 근무했는데 지금은 체험학습지로 탈바꿈해서 격세지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라고 말했다.

민통선 안의 유일한 숙박형 체험 공간인 캠프 그리브스는 당일 프로그램 외에도 1박 2일과 2박 3일 프로그램이 있는데,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과 같은 투어,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알아보고 친환경 물품을 만드는 생태 학습, 군번줄 제작과 군복 입어보기 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서 탐방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FOCUS 02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음악동아리, “너희들의 도전을 응원해!”

글_ 백희 명예기자

서울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서울형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 음악동아리 ‘사이코프스키’를 운영한다. 사이코프스키는 심리(Psychology)의 영문 앞 글자 사이(Psy)와 차이크프스키의 ‘코프스키’를 딴 합성어로 학교를 떠나 소속감을 잃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소속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음악, 예술 분야의 문화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만들어졌다. 음악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긴장감이나 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를 음악을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도우며, 협동심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첫째인 2021년에는 타악기 앙상블, 톤차임 연주, 패러디 음악 만들기, 우쿨렐레 만들기, 소밴드 앙상블 활동을 해왔다. 올해에는 오는 11월까지 밴드 앙상블 활동을 하며 선호곡을 연습하고 치료적 음악을 만드는 활동과 연습곡 녹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타, 카혼, 키보드 등 밴드앙상블 연습을 통

해 공동체 함양과 협동성, 배려 등의 인성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악보를 쉽게 보고 연주할 수 있도록 숫자 악보를 제공해 연습하고 있다. 윤정은 강사는 “청소년들이 악기를 쉽게 익히고 다룰 수 있도록 고안하여 쉽게 악기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라며 “음악을 통해 소통하면서 무기력했던 아이들이 회복탄력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우 청소년은 “음악을 좋아하지만, 배울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사이코프스키 활동이 진로를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 청소년은 “학교 밖에서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동아리가 없어서 아쉬웠다. 음악에 흥미가 없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기타에 흠뻑 빠지게 되었고, 아직 부족한 실력이지만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FOCUS 0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앱을 소개합니다!

글_ 이재형 명예기자

학령기의 모든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아니다. 학교 밖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도 있고, 학교를 떠나 방황하는 청소년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앱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자립해냄’ 앱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출시했다. 해당 앱에는 청소년쉼터 안내와 청소년 취업 지원 제도, 청소년 복지서비스 등 정부 정책뿐 아니라 청소년이 자립할 때 필요한 주택임대계약 절차, 취업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앱을 이용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청소년 쉼터도 검색 가능하며, 해당 쉼터에 입소 가능 여부도 알 수 있다. 특히 본인이 자립할 때 필요한 요소를 주거 관리, 음식 관리, 사회기술, 성 보호 등 11개 부문으로 정리해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자립준비도 자가진단은 물론 필요시에는 실시간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둘째, 청년 자립의 모든 것을 담은 ‘마음하나’ 앱이다. ‘마음하나’는 흩어져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고, MZ세대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전문 상담사의 무료 상담 서비스와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보 콘텐츠, 참여형 캠페인을 제공한다. 이 앱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음톡&마음톡 플러스다.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와 1:1 댓글 처방과 따뜻한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립정보 ON’ 앱은 보건복지부 산하 아



자립해냄 마음하나 자립정보 ON

동권리보장원에서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혼자 서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똑똑한 자립생활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혼자서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자립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영역별 자립 정보와 다양한 정책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눈길을 끄는 정보는 자립 정보 찾기가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한 은행거래, 금융상품 선택하기, 청년우대 금융상품 등의 정보가 있다.

한편,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정 검진 기관을 통해 본인 비용 부담 없이 건강검진 및 확진검사(2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진 주기(3년)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고 3년이 지난 학교 밖 청소년은 다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니 많은 청소년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②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SPECIAL

vol. 483 OCTOBER

디지털 대전환 시대, 100만 인재 양성

디지털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내용이자 도구로서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교육 현장의 디지털 대전환도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에서부터 고등·평생교육에 이르는 전 주기적 교육체제 내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5년간 (22.~26.)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학교·대학·민간이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수준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의 주요 방향을 살펴보고 교육 현장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에듀테크 활용 교육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 20 디지털 인재 양성은 시대의 과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 24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국민의 디지털 역량 키운다!
- 28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과 과제
- 32 AI,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혁명





디지털 인재 양성은 시대의 과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01 21세기 현재, 세계를 변화시키는 핵심동력은 '기술'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흔히 '그렇다.'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답을 구성해보면 '다른 핵심동력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술을 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정도일 것이다. 만약, 19세기 말 혹은 20세기 초에 이 질문이 제기되었다면, 가볍게 '그렇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의 이념'이거나, 혹은 우주와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전자기이론,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등의 이론'을 핵심동력에서 무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질문이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변화가 몰아치던 18세기 유럽에서 제기됐다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증기엔진 등의 '인공의 힘'을, 16세기와 17세기의 유럽이라면, 세계의 존재와 변화를 설명하는 새로운 방법인 뉴턴역학 등의 '과학'을 우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핵심동력이라고 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02 21세기 현재, 우리는 충분히 높은 확률로 직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쉽게 '그렇다.'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현재의 고등학생이 자기 직업을 가진 상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미래를 고려한다면 5년, 1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해야 하고 전문직업으로의 진출을 고려한다면 15년 뒤 혹은 2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직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변화가 빠를 뿐만 아니라 어느 영역에서 어떤 기술이 등장하여 현재의 직업에 영향을 미칠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없다는 점도 직업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5년, 10년 뒤 혹은 20년 뒤,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현재와 유사한 방법으로 '코드'를 짜고 인공의 인지시스템을 학습시키고 있을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신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현재의 학생들에게 디지털 코드와 데이터를 다루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즉,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건 유연하게 대응하며 그 세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100만 디지털 예비인재의 학습경험 속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03 21세기 현재, 우리의 교육시스템을 기초로 이 문제를 다루어도 되는가?

우리 교육시스템이 가진 몇 가지 전제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학년을 나누는 방법이다. 둘째, 졸업 이전과 졸업 이후를 엄격하게 나누는 방법이다. 졸업 이후에는 교육시스템의 접근이 불가하거나 매우 어렵다. 셋째, 학교, 교실이라는 하나의 공간과 동일 시간에 집합하는 방법이다. 우리 코로나19에도 디지털 공간에 동일 시간에 집합했다. 넷째,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와 배우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 사이의 비대칭성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알고 있고 배우는 사람은 모르고 있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잘하고 배우는 사람은 못한다 등의 비대칭성을 전제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디지털 기술'은 100년 넘게 유지되어온 이 교육시스템의 기본 전제들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은 교육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라는 것이다. 서로 다른 연령대의 학생들이 집합하지 않고 서로 다른 물리적, 디지털 시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학습 경험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졸업 이후에도 교육시스템에 수월하게 재진입할 수 있으며 가르치는 역할과 배우는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04 **쉽 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코드와 데이터를, 변화하지 않는 (변화하기 어려운) 교과서/종이교과서로 다룰 수 있는가?**

2019년, <인공지능과 미래사회>(서울교육청 인정도서)라는 고등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3년은 버틸만한 내용은 종이교과서에 담고, 나머지는 디지털 실습플랫폼에서 감당하게 하자.’와 같은 기준을 집필진들이 합의하고 ‘교과서 개정할 때도 함께 하자.’는 약속을 했었다. 2022년 9월 현재, 종이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요구가 당시의 집필진에게 전달되지는 않았고 코드와 데이터를 실습하기 위한 디지털 코딩실습플랫폼은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지 못했으며 여전히 샘플 코드와 데이터는 깃허브(GitHub)에 있다.

100만 디지털 예비인재 양성은 종이교과서로만 감당할 수 없다. 디지털 기술의 변화에 적응하는 ‘매체’와 코드와 데이터를 다루는 지식·정보·경험을 주고받을 ‘실습플랫폼’이 ‘공식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자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초·중·고 공식 교육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 말하자면, 디지털 실습플랫폼에 연결된 디지털 텍스트가 ‘교과서 검인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05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교육계의 대원칙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세상을 설명하는 모든 이론이 변화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는 세계를 설명하는 교육학 이론 역시 변화한다. 21세기 현재, ‘학습자 중심’은 교육학의 기본 전제다. 학습자의 삶에 연결된 문제·과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해당 과제와 관련된 개념·지식·이론을 자발적,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하자는 전략이다. 즉 개념·지식·이론을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본인 삶의 주인이 되는 경험 역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100만 디지털 예비인재 양성 과정에서도 전제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과 학교, 그리고 학생들 삶과 연결된 세상에서 발생하는 실제 데이터가 학생들이 접근 가능한 상태로 개방되고, 해당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문제에 대한 본인의 해결방안을 적용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서의 학습환경 혹은 세계가 실습플랫폼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66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건 유연하게 대응하며 그 세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100만 디지털 인재의 경험 속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99

06 **디지털 코드와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을 교육시스템의 거버넌스 안에 담는 방법은 있는가?**

종이에 새겨진 텍스트는 독자의 머릿속에 영향을 주지만, 디지털 코드는 세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도구이다. 소설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n번째 팬데믹은 디지털 버전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교육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자원에는 새로운 거버넌스 원칙이 필요하다. ‘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의 윤리원칙’(2022년 8월, 교육부 발표), ‘학교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가이드라인(2021년 8월, 서울시교육청 발표)’ 등 행정 주체들의 원칙이 꾸준히 정교하게 고안되어야 할 뿐 아니라,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윤리원칙과 교육과정,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100만 디지털 인재는 본인 삶의 행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인류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과 함께 개인과 사회,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역량들이 ‘양성 과정’ 내에 포함되고, 이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의 거버넌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100만 디지털 예비인재는 디지털 기술을 충실하게 다룰 수 있고 동시에 기술의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된 교육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초·중·고 교과서에 포함되는 실시간 빅데이터와 디지털 코드가 검인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코드와 데이터를 실습해볼 수 있는 디지털 실습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A학교 B반이라는 소속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개발자 커뮤니티의 소속감 역시 100만 디지털 예비인재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주체의 엄격한 구분이 아니라 누구나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의 디지털 인재들이 현재의 교육시스템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위한 혁신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②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국민의 디지털 역량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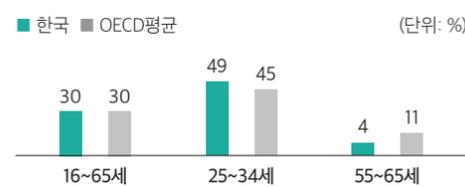
우리 생활에서 스마트폰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있을까? 버스와 택시를 기다리는 일, 음식을 주문하거나 물건값을 지불하는 일, 여행 정보를 조사하는 일도 스마트폰으로 이뤄진다. 이미 디지털 세상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지난 2~3년간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 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더 빨라졌다. 앞으로도 속도의 가감은 있겠지만,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라는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뿐 아니라, 금융, 교통, 쇼핑, 행정, 교육 등 다양한 전공과 직업 세계에서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인재를 필요하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는 비율 낮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디지털 사회를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조심스럽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은 뉴질랜드, 핀란드, 네덜란드 등보다 낮은 편이며, OECD 평균 수준이다. 또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따르면, 만 15세 청소년의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역량’은 OECD 평균이 47.4%인데 비해, 우리 청소년은 25.6% 수준으로 조사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었다.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제대로 활용하거나 이해하는 수준은 높지 않다는 것이 국제적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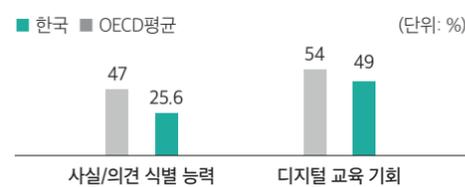
한편, 세계 각국은 초·중등교육에서 정보학, 컴퓨팅 언어, 인공지능 등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해당 수업시수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3월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2,000만 명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를 확보(현재 780만 명 수준)하고 모든 성인의 최소 80%가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표 1 - 성인의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자료

표 2 - 청소년의 디지털 문해력



*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자료

국민 누구나 디지털 인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지난 8월 22일,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가 함께 30여 차례의 현장 방문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방안이다. 이번 종합방안은 향후 5년간(’22.~’26.) 양성할 디지털 인재의 목표를 100만 명으로 제시하고 학교, 대학, 민간이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수준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 인재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빅데이터, 메타버스,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개발, 활용, 운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다. IT분야 등 첨단기업의 개발자를 포함해서 각자의 전공과 직장에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인재라면 누구나 디지털 인재다.

향후 5년간, 디지털 분야의 인재 100만 명 양성

정부의 재정지원 수혜자를 기준으로, 디지털 분야의 인재 양성 규모는 2021년 현재 약 9만 9천 명이다. 향후 5년간의 인재 수요는 약 73만 8천 명(초급 9만 명, 중급 52만 명, 고급 12.8만 명)으로 예상되지만,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인재를 필요로 하여 그 수요는 더 커질 것이다. 정부는 연평균 양성 인력을 지금의 2배 수준인 20만 명으로 확대하여 초급 16만 명, 중급 71만 명, 고급 13만 명의 다양한 인재를 5년간 양성할 계획이다. 정책의 방향도 전문기술 인재와 함께, 각자의 전공 분야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인재,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인재를 포괄적으로 양성하고, 분야별로 초·중·고급의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 3 - 디지털 인재 수요 전망 및 양성 목표

	초급 (고졸 전문학사)	중급 (학사)	고급 (석박사)	총계
5년간 수요(’22.~’26.)	9만 명	52만 명	12.8만 명	73.8만 명
양성	현재(21.)	1.5만 명	6.6만 명	1.7만 명
	5년간(’22.~’26.) 목표	16만 명	71만 명	13만 명

먼저, 첨단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가 양성되도록 선도대학들을 육성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는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SW 전공자를 확충하는 ‘SW중심대학’ 등의 재정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을 통해 신산업·융복합 분야 교육연구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AI,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전문 분야별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여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첨단분야는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통해 5년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갖는 고급인력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 보유한 연구성과와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관련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실전 경험을 갖춘 인재가 양성되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도 계획 중이다. 우수한 장비와 현장 전문가를 보유한 기업이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협력할 수 있도록 첨단분야 계약학과와 모집정원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규제도 개선할 것이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다. ICT 역량이 높을수록 고용 가능성과 임금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 분야가 아닌, 인문·사회 계열 등 비전공 학생들도 대학 재학 중에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6개월 정도의 집중 교육과정(부트캠프)을 운영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교육훈련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K-Digital Training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중등 정보교육 강화... 디지털 친숙도 제고

한편, 미래세대의 디지털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 단계부터 정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 수업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에서는 현재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중학교에서는 현재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수업 시간을 확대한다. 현행 SW 코딩교육에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발달단계에 맞게 부담 없이 코딩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보교육은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모두가 함께 역량을 갖추어 가는 교육이 될 것이다. 또 학교 간·지역 간 디지털 교육의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한 SW·AI 캠프를 전국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표 4 - 정보교육 활성화 로드맵(안)

		현재	'22.~'25.	'25.~
배치	초·중학교	초·중학교 SW교육 필수화 초등 5~6학년: 17시간 중: 34시간	AI 교육 선도학교 확대	초·중학교 정보교과 시수 확대 초등:34시간 이상/ 중:68시간 이상 학교 자율 정보시수 증배 기제 마련
	고등학교	SW·AI 선택과목 신설 AI 융합교육 중심고 운영	방학 중(방과 후) SW·AI 캠프 운영 등 디지털 교육 활성화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 SW·AI 선택과목 확대
교원		교육대학원 연계 AI 융합교육 전문과정 도입(석사학위)	현직 교원 역량 강화 지원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정보교육 담당 교원 배치

이러한 정보교육 확대에 대비해 선생님들의 재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적정규모의 정보교육 담당 교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스마트스쿨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부문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성인들의 디지털 문해력과 역량 향상 지원

이번 종합방안에는 일상생활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노인, 어르신 등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 900개소에 구축된 '디지털 배움터(과기정통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 근처에서 편하게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17개 시도에 구축되고 있는 '디지털문제해결센터(교육부, 시도교육청)'는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지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디지털 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24년부터는 우리 국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정기적으로 진단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학 교양 수준의 디지털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K-MOOC(온라인 공개강좌)를 통해 첨단분야 석학들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K-MOOC에는 '22년 기준으로 138개의 강좌가 탑재되어 있으며, '22년 2월 초에 이미 36만 명의 수강생이 강의를 신청한 바 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새 시대 대비한 인재 필요

우리나라 공교육의 역사에서 가장 모험적이었던 정책으로 초등 의무교육을 손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해방 당시 문맹률이 80%에 가까웠던 나라가 전쟁통 피난 천막에서,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서 기초 문해교육을 실시했고, 먹고살기 힘겹던 시절에도 매년 국가 총예산의 10%가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초등 의무교육을 완성했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는 세계사적인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70여 년 전에 과감하게 초등 의무교육을 결단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도전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한 때이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등이 일상이 되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국민들이 저마다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인재 양성에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전쟁통에도 초등 의무교육을 준비했던 역사를 모범 삼아, 미래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평생교육까지 전 주기적 교육 체제 내에서 희망하는 모든 국민들이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갖추 수 있도록, 학교, 대학, 직업훈련기관들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인재 양성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빈틈없이 정책을 이행할 것이다. ②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과 과제

정부의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에 따르면 미래세대의 디지털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컴퓨터 수업 시수를 2배가량 확대한다. 현재 초·중학교의 정보·컴퓨터 수업은 초등학교 17시간, 중학교 34시간이지만,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으로 크게 늘린다는 것이다. 정보·컴퓨터 수업 시수가 늘어나는 만큼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확보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인재 양성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인적·물적 인프라를 점검해본다.



“공간이 변화하면 교사의 교수·학습법도 변화한다. 혁신적인 SW 교육 공간을 구축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SW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소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도전정신과 열정을 더욱 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포항제철중학교 김경규 교사는 SW 교육에 있어서 기자재 못지않게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 구성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이 학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을 구축했다.

포항제철중, 스마트교실로 아이들의 상상력 자극

기존의 컴퓨터 교실이 실습과 강의에 충실했다면 포항제철중의 첨단 SW 교실은 스마트 교육 환경 위에 다양한 SW 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의 확장성과 융통성, 필요에 따라 각 공간을 넘나들며 활동할 수 있는 연결성, 학생들의 편익을 고려한 친밀성, 스팀(STEAM)형 수업 공간을 통해 참여와 협력이 발현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에 주안점을 두고 공간을 구축했다.

장비에 대한 철학도 남다르다. 미래지향적인 공간과 교육을 꿈꾸지만 그렇다고 고가의 첨단 장비를 확보하기보다는

- 1 2 포항제철중학교의 첨단 SW교실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구성으로 디지털기반 스마트교실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3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과 창조적인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의도한 메이커공간
- 4 포항제철중학교 스마트교실의 평면구구성도

가성비가 높은 장비와 교구를 다양하게 구비하여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장비가 첨단이 아니라 아이들을 첨단으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디지털 기반 학습공간 전국으로 확대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과기정통부와 손잡고 전국의 낙후된 교육시설들을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전환하고 있어서다. 우선 유·초·중등학교 관련 낙후된 시설 2,835동이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탈바꿈된다. 중학교 정보교과 시수 확대를 대비한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지원(200실)'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AI와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5G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기술이 도입된 '스마트캠퍼스' 조성에도 힘을 보탤 방침이다. 여기에 과기정통부의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구축지원 사업(149개교)까지 더해지면 아이들의 학습 환경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활발하게 배포 중인 태블릿PC나 현재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AI 교육에 적합하지 않다

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북, 경남, 제주 등의 교육청과 연계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3D 시뮬레이터 등의 기자재와 함께 학생 개인별 노트북 지원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전국 학급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을 완료했으며 각 학교의 노후화된 유선망도 기가급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별로 디지털 보편·접근성에 대한 공통지표를 개발하고 진단해 그 결과를 토대로 인프라 관련 정비와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방침이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양질의 교원 육성

한편,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교육부는 기존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대학원(석사과정)에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야간대와 계절학기 등을 통해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AI 융합과정은 등록금의 50%를 교육부가 지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 2 포항제철중학교의 첨단 SW교실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구성으로 디지털기반 스마트교실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3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과 창조적인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의도한 메이커공간

4 포항제철중학교 스마트교실의 평면구구성도

66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99

중학교 교사의 경우 관련학과 전공자가 대부분이지만 비전공인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수업을 따라가기도 벅찬 실정이다. 학생들이 전공자, 비전공자로 양분되다 보니 수업 내용도 중심을 잡기 어렵다. 중학교 교원들에겐 학부에서 배운 내용과 별 차이가 없고 초등 교원들에겐 난도가 너무 높아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전문가들은 기존 컴퓨터교육 전공과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AI 융합전공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정작 학생들은 기대만큼 늘지 않고 2개 전공으로 양분되고 있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 기존 전공이나 신설 전공 모두가 안착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타이틀을 제한하지 말고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까닭이다.

예비 교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순항 중

교육부는 예비·현직 교원의 원격교육 등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대에 구축한 28개의 미래교육센터를 통해 AI·디지털 교육 관련 학교 현장의 변화를 한 학기 동안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실습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AI·디지털 활용 수업의 실현 기회를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AI 교육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구축된 AI 교육

모델을 전체 교·사대로 확산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AI 교육 역량강화사업은 초등 AI 교육(대구교대, 춘천교대)과 AI 심화교육(공주대, 성균관대), AI 융합교육(서울대, 이대) 등 3개 분야 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공주대 컴퓨터교육과 강신천 교수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파일럿 차원에서 추진된 사례 중 효과가 있고 교육 현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일반에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5 포항제철중학교에서 운영한 SW-AI교육 캠프 기념사진
67 다양한 SW 융합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포항제철중 수업 모습



공주대, 타 학과와 연계한 AI 융합교육 활발

현재 AI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주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다. 우선 타 학과와 연계한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이다. 일반학과의 교수·학생과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프로젝트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컴퓨터교육과 교수와 학생이 인공지능이나 데이터과학 개발의 역할을 담당하고 일반학과 교수와 학생은 도메인 지식이나 교과별 내용에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과학을 융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구체적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나 웹앱을 설계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나뭇잎의 잎맥을 분류하는 머신러닝 웹앱을 무료로 제공해 초·중등 교원이 학생들과 함께 사례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머신러닝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는 등 활발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실습환경을 구축해 사범대학 구성원이 누구나 원하면 실습환경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점이다. 공주대는 파이썬과 R개발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허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두 개의 실습환경은 클라우드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어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 어떠한 단말기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외부에서 접속한 데이터들은 공주대의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 기초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연계 강화

강 교수는 "예비 교원양성과 현장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역량 강화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플랫폼 마련과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연수나 양성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인공지능 디지털 역량에서 강조하거나 포함해야 할 부분으로는 '인공지능 기초', '디지털 리터러시'와 이들의 기반이 되는 '컴퓨팅 사고력' 그리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수설계와 수업 실행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함께 제공하여 참여 창작 중심의 교육이나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㉔

AI,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혁명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의 핵심으로 '교실 수업'을 꼽을 수 있다. 교육의 내용이자 도구로서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은 인공지능(AI),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혁명을 앞당기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AI 학습 튜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를 확산하는 한편, 교육용 AR, VR 콘텐츠 및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하는 등 AI,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어느덧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AI,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통해 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우와~ 선생님. 펭귄이 엄청 많아요!!”

“자자. 아직도 타지마할에 있는 학생들은 빨리 남극으로 건너 오세요!!”

서울성신초등학교 학생들은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들이다. 인도 타지마할에서 남극 대륙까지 순식간에 이동이 가능하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가상현실(VR) 수업 덕분이다.

사회와 과학 수업 시간에 전 세계 유명 유적지를 관람하는 건 물론,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만 10여 명의 교사가 'VR교과연구회'를 운영하며 학년별 수업방식에 대한 토의와 연구를 이어가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VR 수업을 주도하고 있는 성신초 이주성 교사는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이제는 동영상 수업만으론 아이들의 관심을 얻기 어렵다.”라며 “실감형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말한다.

서울성신초, 실감형 수업을 통해 집중력 향상

유튜브 채널 '친절한 에듀테크쌤'을 운영하는 이 교사는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 교과서 실감형 콘텐츠 제작

1 2 서울성신초는 VR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수업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중학생 중에는 교사들보다 능숙하게 디지털기기를 다루는 아이들이 많지만, 초등학생들은 네트워크 설정 등 일일이 도움을 받아야만, 수업이 가능하다.

위원과 서울시교육청 에듀테크 선도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VR 수업에 대한 효과가 알려지면서 다른 학교 교사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업 준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에듀테크가 교육혁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소리다. 우선 디지털기기 세팅에만 20~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중학생 중에는 교사들보다 능숙하게 디지털기기를 다루는 아이들이 많지만, 초등학생들은 네트워크 설정 등 일일이 도움을 받아야만, 수업이 가능하다. 교과서 구성도 에듀테크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서책형 교과서는 물론이고 디지털 교과서도 참고용 자료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어렵게 준비한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재구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

수업 준비는 오롯이 교사의 몫, 지원책 마련 시급

무엇보다 디지털기구나 에듀테크 활용이 생각만큼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동료 교사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해서다.

디지털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새로운 수업방식을 시도하기란 쉽지 않다. 서울성신초가 VR 수업을 전 학급으로 확대할 수 있었던 비결도 결국에는 신은주 교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교사는 “우리 학교가 VR 수업 등 에듀테크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고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교장·교감 선생님과 고경력 교사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며 “교장 선생님이 전교를 순회하며 VR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다른 선생님들의 인식변화가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설명한다.

외국의 경우 초등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수업에 테크 전문가가 보조교사로 참여해 기기 세팅을 진행한다.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성신초의 경우 자습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해 신 교장이 직접 기기 활용 수업을 진행한다. 교장이 직접 보조교사 역할을 자청할 정도이니 에듀테크 전도사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건 당연지사다. 일선 교사들뿐 아니라 관리자들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이유다.

66

에듀테크를 활용해 교수·학습과 평가체제를 개선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등을 실현하고 있다.

99

에듀테크 선도고교, 디지털 교육혁명의 첨병

에듀테크를 통한 교육혁명은 비단 초등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고등학교에서 의미 있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2020년 10월 부터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22개 고등학교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유형에 따라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12개교)와 ‘에듀테크 선도고교’(10개 교)로 구분된다.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는 농산어촌, 구도심 등 교육 소외지역 소 규모 학교의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모델로, 원격교육 기반이 충분하고 교·강사 자원이 풍부한 거점학교에 설치하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에듀테크 선도고교는 학교 구성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내 지능형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활용해 교무·학사행정을 간소화하고 사물인터넷, CCTV 등을 활용해 학생 건강관리 및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에듀테크를 활용해 교수·학습과 평가체제를 개선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등을 실현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전체 수업 중 30% 이상을 온-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운영하며, 디지털 교과서 및 AI 활용 학습 등 기술이 접목된 교과수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며 일부 과목에서는 개별 학생에 맞춰 영상자료를 구조화함으로써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광주 빛고을고, AI 분석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선도고교 중 한 곳인 광주 빛고을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운영했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과제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차평화 교사는 “AI 학습솔루션을 적용해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정답을 제출하면 틀린 부분만 맞춤형으로 후속 문제를 제공하는 등 자기평가와 학습 진단이 효과적으로 진행된다 보니 아이들의 실력향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한다.

AI 분석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해졌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은 에듀테크 혁명을 앞당기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다만 도입 초기다 보니 디지털 환경에 대한 교사들의 개인적인 역량 차가 학급별 수업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나 사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풀어야 할 과제다.

AI, 에듀테크 활용 학습격차 해소해 나간다

교육의 내용이자 도구로서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디지털 인재 양성에 AI,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하여 학습격차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학력진단시스템 등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AI 분석을 통해 ‘AI 학습 튜터링(AI 보조교사)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도록 맞춤형 학습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단계별 학습을 도입하고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해 개별 학생의 오개념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 개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교재와 학습 활동에 대한 최적의 학습 경로 등을 결정해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에듀테크 선도고교 사례에서처럼 앞으로는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지능형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등 모든 학교에 교원 업무를 지원한다. 2023년 상반기에는 교원 업무 전반으로 확대되며 학생, 학부모의 서비스도 강화된다.

그 밖에도 교육부는 수준·내용의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해 교원 전용 제작 플랫폼 ‘잇다’에 탑재하는 한편, 디지털 교과서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실감형(AR, VR 등)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원 활동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⑦

3 에듀테크 선도고교인 광주 빛고을고 학생들의 수업 모습
4 성신초 신은주 교장이 자습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VR기기 활용수업을 진행 중이다.





AR, VR 체험 시연



어린이가족용 스마트 게임 체험



서울거원초 박준현 교사의 수업 시연



실내스포츠 공동관



문체부 교육용 게임콘텐츠 체험



교육용 로봇

2022 에듀테크 코리아 첨단기술 활용한 '실감나는 수업' 함께해요!

글_ 편집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롭고 다양한 교육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교육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교육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2022 에듀테크 코리아' 행사를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미래 교육기술이 적용된 정책과 우수 제품을 소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박람회(페어)와

민·관·학 전문가가 함께 미래 교육정책 의제를 제시하는 공개 강연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첨단기술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창의적인 수업이 선보여 박람회장을 찾은 학생, 학부모, 일반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교육부 미래교육관에는 전자칠판, 스마트패드, 영상 장비 등 다양한 교수학습 콘텐츠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수업을 위한 스마트교실을 구축했다. 이곳에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디지털교과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수학·과학 가상실험 체험', '메타버스 생태계 체험관 답사하기', '인공지능으로 배추 생산량 예측하기 체험', '인공지능 암석 분류기' 등의 수업을 시연하였다.

서울거원초등학교 박준현 교사와 4학년 학생들은

행사 첫날, 메타버스 생태계 체험관 답사하기를 주제로 수업을 시연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은환 책임연구원은 "오늘 시연한 수업은 디지털교과서, 실감형 콘텐츠, 메타버스를 융합해서 교과서 내용을 메타버스 안에서 재현한 것이다. 교과서에서 다루는 생태계를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몇몇 기업이 참여해서 메타버스 교육용 콘텐츠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학 메타버스 연계 수업과 디벗(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활용 수업을 시연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을 통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예습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인문, 자연, 창의 영역의 24가지 교육용 게임콘텐츠를 선보여 학생들의 체험이 이어졌다.

행사장을 찾은 평택청아초 이광영 교감은 "에듀테크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 박람회는 아이들의 스포츠 놀이식 교육과 게임 관련된 콘텐츠, SW와 코딩이 접목된 자료들이 많이 보인다. 오늘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학교에도 도입해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으로의 발걸음, 디지털 플랫폼으로'를 주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강연을 생중계하였다. 인공지능 교육의 권위자인 런던대 웨인 홈즈 교수는 '인공지능과 교육, 비판적 연구 관점에서'를 주제로, 증강현실 협업 플랫폼 스페이셜의 공동창업자인 이진하 대표는 메타버스가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강연하였다. 그 밖에도 11개국의 석학들이 참여해 국내외 교육혁신 사례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②

2023년 온라인 학교가 찾아옵니다~

글_ 편집실 그림_ 이정화



진욱이 학교 잘 다니고? 언제 이렇게 컸어? 내년엔 고등학교 가겠네.

네~ 큰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등학교라... 시골에서 애 키우기 힘들지 않아? 더 늦기 전에 애 교육도 생각해야지.

진욱이가 이곳에서 나고 자랐고, 또 마을에 대한 애착도 커요. 저는 여기서 키우는 것도 좋은데요 뭘~.

요즘은 고교학점제라고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거든. 근데, 시골 작은학교는 여건상 다양한 선택과목을 운영하기 힘들잖아. 교육격차도 있고.

에이 큰어머니, 작은학교가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긴 하죠.

누나가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원격수업할 때, 우리는 평소처럼 매일 학교 나가서 공부했어요.

맞아, 진짜 부러웠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대면으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건 원격수업으로 배우면 좋을 텐데요.

우리 학교는 몇 개 학교가 모여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온라인 학교가 시범 운영된다는구나.

온라인 학교요?

고등학생에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수업을 개방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전공 선생님이 없거나 학생수가 적어 학교가 제공할 수 없는 과목을 들을 수 있다면 소규모학교나 농산어촌 학교에 좋은 대안이 되겠어.

그렇죠. 교육청에서 별도 학교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교장, 교사 등 정규 교원을 배치하고 교실과 방송 스튜디오 등 학교 시설도 설치한다는군요.

와~ 그럼 인공지능 관련 수업도 들을 수 있겠네요. 꼭 배우고 싶었거든요.

원하는 과목은 다 들을 수 있어요?

쌍방향 수업을 하고 학교처럼 성적이나 학생 관리를 하는 건가?

쌍방향 수업 성적 학생관리

학기당 들을 수 있는 학점이 정해져 있고, 학교 수업처럼 성적이 나오고 생기부에도 기록된대요.

아이마다 진로가 제각각이듯이 배우고 싶은 것도 다 다른데, 온라인 학교 정말 맘에 드네요.

제 맘에도 속 들어요.

우리 동네로 이사와~

고등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학교'가 내년부터 대구, 인천, 광주, 경남 등 4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온라인 학교'는 기존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교장, 교사 등 정규 교원이 배치되며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방송 스튜디오 등 학교 시설도 설치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온(On) 세상으로 만나는 국제공동수업’ 외국 친구와 함께 수업... 세계시민역량 키운다

올해 4월부터 서울 초·중·고에서 통번역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국제공동수업’을 시작했다. ‘국제공동수업’은 글로벌 온라인 협력수업으로, 서울 학생들과 세계 학생들이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만나 서로의 문화와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우정도 쌓고 다양한 문화체험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국제 교류의 기회와 함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원동력이 될 ‘국제공동수업’의 면면을 살펴본다.

글_ 편집실 사진 제공_ 서울특별시교육청·구의초등학교·대일관광고등학교

통번역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국제공동수업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상반기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네이버, 구글, 국내 중소기업 등과 개발 및 업무협의를 통해 구글 클라우드번역 기능과 화상회의(Zoom) 프로그램,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공동수업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고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렇게 개발된 통번역화상회의 프로그램은 사람의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환하고, 변환된 텍스트를 기계번역한 뒤 상대국 화면에 상대국 언어 자막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서울 학생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든 전용 홈페이지(<http://ijclass.sen.go.kr>)에 접속해서 모국어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해외 학생의 화면에는 자국어 자막이 실시간으로 번역·제공되면서 외국어 능력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국제공동수업’에는 국내 43개교, 해외 42개교 총 85개교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업홍보를 지속하면서 해외 참여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서울 초·중·고 110개교까지 참여 학교를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서울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구의초, 이해·존중·협력 배우며 세계시민으로 성장

서울구의초등학교(교장 최은자)는 벌써 다섯 번의 국제공동수업을 진행했다. 구의초 3학년 학생 26명이 일본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립 하기와라초등학교 4~6학년으로 구성된 국제교류클럽 학생 21명과 함께하는 온라인 협력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장철 구의초 교사는 “본격적인 국제공동수업 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공해준 통번역화상회의 프로그램, 이메일, 라인(메신저) 등으로 상대국 교사와 수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회차별 수업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학생들에게는 어떤 사전 자료조사를 과제로 제시할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견을 조율했다.”라고 말하면서 국제공동수업은 상대국과의 이견 조율과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올해 서울구의초와 일본 하기와라초는 국제(Global)와 현지(Local)의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컬(Glocal) 개념을 주제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내용을 구성하기로 했다.

수업은 월 1회 총 7회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수업내용은 마을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는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국제공동수업 안에 포함시켰다. 학생들은 교사가 미리 과제로 제시한 주제에 따라 현장 방문, 자료조사, 영상촬영, 발표자료 등을 준비해서 온라인 클래스룸에 올렸다. 영상물 제작 시에는 일본어 자막을 제공해서 상대국 학생들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마을과 놀이터를 소개하기 위해 모둠원들과 함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것도 재미있었고 우리가 만든 영상을 보면서 닮은 듯 다른 모습에 신기해하던 일본 친구들의 반응도 기억에 남는다. 또 일본 초등학교 놀이터에 대해 배울 땐 우리 놀이터와는 많이 달라 매우 흥미로웠다.” 조미래(3학년) 학생은 국제공동수업을 통해 일본 친구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 알게 되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

수업이 끝나면 해당 수업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다. 학생들은 성찰일지를 통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 교사는 상대국 교사와 함께 공동수업을 분석·평가해서 이후 수업에 반영할 점을 논의하고 적용해나갔다.

김 교사는 “국제공동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과 이슈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배우며 존중하는 세계시민역량을 키웠다고 느낀다.”라면서 11월까지 진행되는 국제공동수업을 완료한 뒤에 교수·학습과정안을 만들어 2023년에 진행하는 국제공동수업에 적용·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기부여·목표 찾기 등 자발적 배움 이끌어내는 장점

대일관광고등학교(교장 김수만)는 오사카부립 후세키타고등학교와 국제공동수업을 진행했다. 지난 5월 16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월 1~2회의 국제공동수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하기와라초 학생들이 보여준 일본 마을 소개 영상



서울구의초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

첫 수업에서는 자기소개와 양국의 식문화, K-POP, 한류 등 양국의 문화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고등학교의 경우 정해진 주제 외에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나 자신이 평소 궁금했던 점 등을 상대국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통번역프로그램이 있지만 일본 친구들과 더 가깝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스스로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일본 친구들이 발표한 자료를 수업 이후 추가로 조사해서 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학생들도 많았다. 또 수업에서 만난 일본 학생들과 친구가 되어서 서로의 SNS를 공유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영도 대일관광고 교사는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원어민과의 대화는 동기부여와 함께 향후 목표설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보다 다양한 해외 학교들과 소통하는 국제공동수업으로 발전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야도 많이 넓어질 것”이라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약 30여 명의 ‘원격수업도우미’를 선발했다. 화상회의 주대화방(메인룸)에서 양국의 교사가 수업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모둠별로 방을 만들어 학생들이 리 자유롭게 대화할 때 ‘원격수업도우미’가 참여해 수업을 지원한다. ‘원격수업도우미’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 학습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해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거나 조절해준다.

통번역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국제공동수업 운영 첫해지만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교류 기회 제공, 해외 친구 사귀기, 외국어 학습 동기부여, 세계시민역량 함양 등 다방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받았다. 하지만 수업 중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거나 영상이 멈추는 등의 기술적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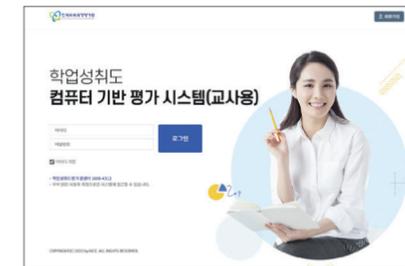
국제공동수업을 위해 개발한 통번역화상회의 프로그램 작동 시스템



대일관광고와 오사카부립 후세키타고 국제공동수업

EDUCATION NEWS

vol.483
OCTOBER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 누리집 화면

NEWS 01 2022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 13일 개통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역량(기능), 태도 등을 진단하여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이다. 중3·고2 전체 학생의 3%를 표집해 지정일에 실시하는 기존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별도 시행된다.

이 평가는 실제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둘러싼 환경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다양한 문항 유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반 평가로 시행되며,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해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급 단위로 신청해 응시할 수 있으며, 개별 학생의 평가 결과는 평가 참여 후 일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교과별 성취수준 등 인지적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제공해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교사가 교수·학습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대상은 올해 초6·중3·고2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EWS 02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감(전북교육청 자체 조사 실시)이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4.11.~5.8.)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9월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됐으며, 전체 대상 학생의 82.9%인 321만 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7%(5.4만 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6%p 증가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전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 대비 0.1%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나타나,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 1차 조사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교수업 정상화에 따라 신체적·언어적 상호작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피해유형별 응답 비중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으로, 이는 2021년 1차 조사 대비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의 비중은 감소하고, 신체폭력의 비중은 증가한 수치이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14.6%)와 중학교(15.5%)는 ‘신체폭력’이, 고등학교(15.4%)는 ‘집단따돌림’이 높게 나타났다. ㉠

교육복지, 전인적 성장을 돕는 통합지원망

글_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66 학습부진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충학습 기회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신뢰할 만한 관계가 형성된 안정된 돌봄이 함께 제공될 때 효과적이다.

99



코로나19 팬데믹이 미래를 앞당기기도 하였지만, 우리 사회에 내재된 문제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그중 하나가 교육격차이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통해 교육 단절은 피했지만, 학업성취도 조사 결과에서 중간층의 비율이 낮아지고 저성취 집단과 고성취 집단은 오히려 늘어난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할 만한 양상이 드러났다. 올해 초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보다 우울해졌다’거나 ‘코로나 이전보다 불안해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25%, 고학년의 30% 이상이었다. 그 외에도 친구관계와 교사와의 관계도 나빠졌다거나 멀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좋아졌다거나 가까워졌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감염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었을 때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방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가정이 많았다. 이제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 시기의 부정적 영향을 안고 있으며 감염 위험도 아직 남아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학습 면에서나 정서발달 면에서 안전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복지가 정책 순위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복지 정책의 전개

요즈음에는 교육복지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25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5.31 교육개혁안에 교육복지라는 말이 있지만 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교육복지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참여정부 시기 교육복지 정책 종합계획 수립 이후다. 이 종합계획에는 기초학력 향상, 학교부적응 학생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겨냥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이 가장 주목을 받았고 이후 교육복지 정책의 전형으로 간주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복지라는 말보다 교육안전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이 지속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기초학력 부진을 없애고 학력을 향상하는 정책을 강조하였다. 교육복지와 교육안전망, 두 용어는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비슷하나 교육안전망은 일정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공적 서비스 체제를 강조하며, 교육복지는 모든 학습자, 특히 불리한 여건의 학습자가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포함한 공적 서비스의 제공 혹은 그 결과를 일컫는다. 어느 용어를 사용하건 정책의 배경으로 교육격차 해소가 있었다. 정책의 초점을 학력 면에서의 격차 해소, 기초학력 보장에 맞추는 경우와 학습자가 처한 상황과 여건의 불리함을 넘어서도록 하는 데 맞추는 경우는 접근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학습 면에서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더라도 학습자의 정서발달을 위한 지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학습자의 불리함 극복에 초점을 두더라도 학력 향상을 도외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교육복지나 교육안전망 관련 문서들에서도 개천에서 용을 다시 내야 한다는 비유가 강조되기도 하고, 개천을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비유가 강조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기초학력부진 제로를 위한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업은 학습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학습부진을 벗어나고 성취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학생들에게 교과 학습 보충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가를 통해 부진 탈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학생의 불리함 극복에 주목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종래의 정책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 접근과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지역’ 접근을 강조한 것은, 학교 이외 다른 교육적 자원이 취약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성장하는 학습자들이 유의미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려면 학교를 넘어선 지원과 학생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합적’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전과는 달리 빈곤이 경제적 차원만이 아니라 문화, 정서, 사회적 자본 등 여러 차원이 결합된 중층적 양상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예컨대 학습부진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충학습 기회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신뢰할 만한 관계가 형성된 안정된 돌봄이 함께 제공될 때 효과적이다. 통합적 접근은 학습자 중심의 다른 이름인 셈이다.

그러나 각 영역에 따라 조직이나 담당자가 다르다면 한 학교나 기관에서도 분절적으로 이뤄지기 십상이다. 실제로 이 정책 사업은 이후 하위 영역들이 독립적인 정책으로 분화되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학력을 보장해 주는 기초학력부진 제로 정책, 학생들의 심리 정서에 특화되어 지원하는 위(Wee) 프로젝트, 돌봄 교실 확대, 도서관 활성화 등이 그 예이다. 정책의 분화는 한편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어려움을

중첩적으로 안고 있는 학생들에게 일면적인 접근을 하게 되거나, 학생을 두고 사업 간 경쟁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한다.

생애단계별로 지원하는 해외의 교육복지

기초학력부진 제로 정책은 미국 부시 대통령 시기 연방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과 기초를 같이 한다. 미국 초중등교육법은 낙오방지법, 전원성취법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첫 장(타이틀원)에 불리한 여건의 학생을 위해 지원책을 명시하였다. 이 법은 특히 부시 행정부 시기 낙오자를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결합하여 성취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학교의 책무성을 따졌다.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이 이와 취지는 같으나 단위 학교의 책무성을 묻는 것보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정책을 설계할 때 참고한 것은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우선지역(Education Action Zone[영], Zones d'Education Prioritaire[프]) 정책으로 둘 다 빈곤층 밀집 지원을 단위로 통합적인 접근을 취한 것이다. 미국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정책과 유사한 접근을 한 사례는 할렘아동지역(Harlem Children's Zone, 이하 HCZ)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를 프로미스 네이버훗(Promise Neighborhood) 정책의 모델로 삼았다. HCZ는 포괄적인 지역 접근을 시도한다. 아동 청소년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진작하는 방향으로 문화를 바꾸는 한편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 취업 지원을 함께하며, 영유아, 초중등,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역량을 키우며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생애 단계별로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이 학업이나 정서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교사와 학습정서 심리 전문가, 변호사, 의사 등이 함께 협의를 통해 개별 아동에 맞는 해결책을 찾고 협력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취한다.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은 '통합'

국내의 사정과 외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면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통합은 다음과 같이 다차원적으로 조망하여야 하나 목표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으로 집약된다.

첫째, 여러 정책 사업 간 분절적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요구와 필요에 의해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이미 전문화된 지원 체제를 물리적으로 하나로 만들 수 없으니 학습자를 둘러싼 교사를 비롯한 전문가,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이 긴밀한 협의와 협력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내 하위

조직 간, 부처 간에도 통합에 준하는 긴밀한 연계 협력이 요구된다.

둘째, 교육과정과 통합이다. 교육복지 정책은 교육 정책이다. 교육복지 혹은 교육안전망은 직접적 교육활동과 거리가 있는 이차적 지원 체제로 분리되어서는 곤란하다. 교육과정이 잘 맞지 않는 가르치기 힘든 학생의 증가를 교육복지 정책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평생학습 시대를 살아갈 학습자가 기본 학습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교사는 학습자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권한을 가지며, 지원 활동도 학습자 역량 함양의 방향으로 모아지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활동과 지원활동이 학습자의 삶과 괴리된 것이 아니라 삶과 통합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기는 가변성이 큰 시기이다. 특별히 전문적 진단과 접근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에서 아동 청소년의 사소한 관심을 존중하고 지적·도덕적인 사고력을 적절하게 자극하며 또래들과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 가도록 하는 것은 전인적 성장에 자양분이 된다.

넷째,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삶의 공간과 문화를 바꾸어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회가 교육을 중심으로 자치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된다.

이렇게 보면 교육복지나 교육안전망 정책의 방향은 미래교육의 방향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육복지 정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시도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미래교육을 앞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도적이기도 하다. ㉔

“ 교육복지 정책은 여러 정책 사업 간 분절적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요구와 필요에 의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또 교육활동과 지원활동이 학습자의 삶과 통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



아트디렉터

갤러리 마노
정하미 대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일, 아트디렉터의 필수 덕목이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약 5,3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규모는 9,157억 원. 올해 9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키아프 서울(Kiaf SEOUL)’과 세계적 규모의 미술 박람회 ‘프리즈 서울(FRIEZE SEOUL)’이 동시에 열리면서 올해 시장 규모는 1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각종 미술 전시회를 기획·총괄하는 담당 아트디렉터들이 흘린 땀과 열정이 함께 한다. 내년이면 개관 20주년을 맞는 갤러리 마노의 정하미 대표를 만나 아트디렉터의 세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글_ 편집실

“내가 보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2018년에 상영된 영화 ‘고흐, 영원의 문에서’에 나오는 명대사다.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필사적으로 그림에 매달리던 빈센트 반 고흐. 그에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 연유를 묻자 들려준 대답이다. 갤러리 혹은 미술관에서 작가들과 벗 삼아 일해야 하는 아트디렉터에게도 누군가 묻는다면? 아마도 고흐의 대사처럼 이 같은 답변을 들려주지 않을까? ‘미술관의 아트디렉터는 무슨 일을 하느냐고요? 작가가 창조해낸 멋진 세상을,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지요!’라고. 지난 9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 전시회 ‘키아프 서울(Kiaf SEOUL, 이하 키아프)’이 열렸다. 국내는 물론 세계의 미술애호가, 수집가들의 시선이 서울로 향했던 기간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갤러리 마노’도 해마다 이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다. 2003년 종로구 가회동에 문을 연 갤러리 마노는 정하미 대표가 직접 기획 및 총괄을 맡으며 연중 6~7차례의 전시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마노(Mano)는 ‘손’이라는 뜻의 스페인어. 올 하반기에도 이곳

마노에서는 회화를 중심으로 섬유예술 영역의 새로운 작품 전시를 준비 중이다. 다음은 갤러리 마노 정하미 대표와의 일문일답.

먼저, 대표님의 아트디렉터로서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키아프가 끝나고 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품에 액자를 끼우고, 운송도 해야 하고요. 판매된 작품 중에서도 호수가 큰 대형작품은 제가 직접 구매 고객의 댁까지 찾아가서 설치를 돕곤 하지요. 작품을 거는 최적의 위치, 천장과의 간격 등 미술품을 설치할 때도 전문가로서의 섬세함이 필요하지요.

전시기획을 하실 때, 작가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갤러리를 연 후 작가들과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어언 15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거 같아요. 소규모 갤러리인 마노로서는 ‘지속가능성 있는’ 작가와 일하는 걸 우선으로 합니다. 개관하면서 초기에는 실력 있는 신인 작가들과 주로 작업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유로 붓을 놓는



작가들도 존재했어요. 붓을 놓아야 하는 작가는 물론이고, 저로서도 아쉬움이 컸지요.

저는 함께 작업할 작가를 정할 때, 데생 잘하는 작가를 선호합니다.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작가가 데생력이 좋거든요. 또 작가에게는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의 주제도 중요해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저는 인성이 좋은 작가와 일하는 걸 좋아해요.

최근에는 나무와 숲을 주제로 작업한 김성국 작가와 함께하셨어요.

전시회를 기획해야 하는 아트디렉터로서는 ‘작가 찾아 삼만리’라는 화두를 늘 과제처럼 품고 살아 가죠(웃음). 그 일이 저로서는 또 재밌기도 하고요. 최근의 신예작가 중에서는 김성국 작가가 특히 좋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죠. 김성국 작가는 이번 초대전 ‘The Trees’에서 나무와 나무가 관계를 맺으며 이루는 숲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다양한 관계 맺음’을 표현했지요. 김성국 작가는 서울대 미대 서양화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영국 왕립예술학교(RCA)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실력 있는 작가예요. 몇 해 전, 우여곡절을 겪으며 개인전을 저희와 함께 연 뒤, 다음 날 바로 영국 유학길에 올랐거든요. 영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후 졸업 전시에서 현지 미술품 애호가들이 고가에 작품을 구매했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고 해요. 유학 떠나면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마노에서 개인전을 꼭 다시 열겠다는 약속을 지켰죠.

초기의 <백남준 드로잉전>도 화제가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백남준 선생님 작품을 좋아하고, 소품으로 설치작품을 소장한 팬이기도 해요. 제가 소장했던 작품 등을 포함하여 협업으로 전시회를 기획

했는데, 당시 꽤 주목을 받았어요. 개관 초기라 홍보가 덜 됐는데도, 좋은 전시를 기획했다면서 평단과 미디어로부터 주목을 받았죠. TV 방송에서도 소개가 됐고요.

일반 대중, 특히 학생들은 현대미술 감상에 어려움을 느끼곤 해요.

미술감상에도 공부가 필요해요. 거저 얻어지는 건 없죠. 참여작가에 대한 탐색, 또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언지 알고 나면, 그림 감상이 훨씬 재밌어지요. 도록을 꼼꼼히 챙겨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트페어 등에서 대개는 전시장 입구에 작품해설 공간이 있잖아요. 그 해설만 충실하게 읽어도 감상에 문제 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그냥 지나치면서 흘려보내는 관람객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그래서 어른들이 갤러리나 전시회를 찾을 때는 여럿이 가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혼자 조용히 다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무리 지어 다니다 보면 관람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편안한 관람을 위해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편안한 옷차림, 운동화 같은 편한 신발 착용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술관 등에서의 관람예절과 문화가 조금은 바뀔 때가 되었어요.

내년이면 개관 20주년인데요. 갤러리 마노의 초기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처음 갤러리 문을 열고 2년여 동안은 고객들도 미술품 보는 눈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에 꾸준히 강좌를 열기도 했어요. 저 역시 마노를 열기 전부터 20년 가까이 그림 보러 미술관을 찾는 게 일상이었고요.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얻은 성과는 미술품 수집에 오롯이 재투자하곤 했어요. 가회동에 있을

때 갤러리의 첫 손님도 제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 있어요. 재미교포 부부셨는데 가회동에 살던 추억 때문에 우연히 갤러리에 들렀다가 100호짜리 두 점을 그 자리에서 구매하셨어요. 초기에는 연중 한 작품도 판매하지 못하던 전시회도 있었으니, 저로서는 참으로 감사했던 고객으로 각인되어 있죠.

올해 남은 전시 일정과 대표님의 앞으로의 계획은요.

마노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제 개인적인 목표는 더욱 명료해졌어요. 막 첫걸음을 떼는 신진 작가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면서 마노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좀 더 관심을 두자고요. 전속작가는 아니지만, 마노와 함께 작품활동을 시작한 작가들이 이후에는 좀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에요. 키아프와 화랑미술제 등 마노와 10년 동안 함께 한 최비오 작가의 경우 베니스비엔날레 초대전에도 참여하게 됐고, 대형 갤러리로부터 프리포즈도 받았죠. 함께 한 아트디렉터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보람 있는 일입니다.

오는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는 섬유예술가인 차영순 작가의 회고전을 기획하고 있어요. 차영순 작가는 2004년에 첫 개인전을 이곳 마노에서 열었어요. 이번 기획전에서는 대학교수로서 활동하던 시절의 작품은 배제하고, 유학생 시절의 순수했던 초기 작품들로만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11월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인 서양화가 이은주 작가의 전시를 준비 중입니다.

끝으로 미래의 아트디렉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은요.

우리나라 전체 미술시장 규모는 해마다 확대되고



작가들이 좀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는 정하미 대표

있어요. 요즘에는 MZ세대도 투자 개념으로 미술품 수집에 관심이 많고요. 마노와 같은 소규모 갤러리부터 대형갤러리, 미술관, 박물관 등 아트디렉터의 수요도 더불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아트디렉터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는 꼭 자신만의 스타일, 영역을 만들어가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기에 덧붙이자면, 전시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사람인 만큼 다양한 경험, 현재의 미술 경향을 꿰뚫는 안목, 프로젝트 팀원을 통솔하고 아우를 수 있는 소통능력은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지요. 2

TIP BOX	미술 전시기획 아트디렉터가 되려면...
	<p>갤러리에서 전시기획을 담당하는 아트디렉터가 되고 싶다면 미술 영역 전공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어와 불어 등 언어학 전공자들의 진입도 늘어나고 있다. 영미권과 프랑스 등 해외 작가, 갤러리들과의 협업이 늘어나면서다. 대형 미술관과 박물관 학예실 등에서 일하는 큐레이터의 경우 해외 유학경험자, 혹은 석·박사급 이상 필수적인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p>

새로운 시각문화를 창조하는 기획자

아트디렉터



아트디렉터(Art Director)는 예술과 문화를 매개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시각문화를 창조해내는 기획자이다. 예술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뿐 아니라 현시대의 사회 문화를 읽을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건축도자를 통해 새로운 미적 세계를 탐구해볼 수 있는 미술관과 미디어아트를 엿볼 수 있는 축제를 소개한다.

글_ 편집실 사진 제공_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고창군청·부여군청·함양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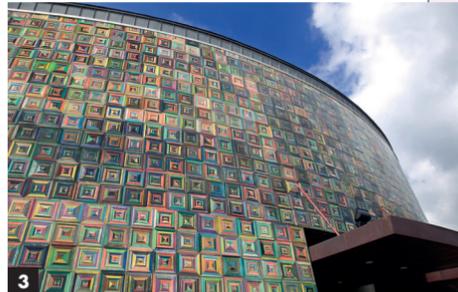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건축과 도자의 예술적 만남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 도자와 건축의 융합적 만남을 지향하는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으로 2006년 건립됐다. 예부터 아름다운 가야토기와 조선 분청사기가 발달했던 김해의 도자 전통을 현대적이고 산업적으로 재해석하였다. 흙(Clay)과 건축(Architecture)이란 뜻의 클레이아크에는 흙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건축도자를 통해 예술로 표현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미술관 전체 면적은 1만 2,810m²로 전시, 교육, 학술회의, 문화 이벤트 등을 위한 다양한 공간과 시설물들로 이뤄져 있다. 전시 공간인 돔하우스와 큐빅하우스,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위한 세라믹창작센터, 직접 흙으로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도자체험관과 미니타일 체험을 할 수 있는 아트키친, 상징조형물인 클레이아크 타워 등이 있다. 특히, 전시관 외벽을 감싸고 있는 5,036장의 타일 작품인 'Fired Painting(구운 그림)'은 건축도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클레이아크 제1호 소장품이다. 전시관 내부에서는 건축, 회화, 조각,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건축도자를 각기 다른 시각으로 표현한 작품들도 확인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아시아 주요 건축가의 건축적 시도를 보여주는 '파빌리온 프로젝트', 흙의 가치와 본질에 주목하는 '친애하는 흙' 전시가 마련돼 있다. 도자와 건축이 접목된 미술관만의 차별화된 체험도 인기다. 건축 재료인 10여 가지 색 타일로 모자이크타일을 만들어 보는 '아트키친'은 건축도자 대표 프로그램이다. 흙으로 자유롭게 다양한 도자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일일도자체험, 초중생 대상 '클레이아크 뮤지엄스쿨'과 '클레이아크 진로탐험대'도 운영하고 있다.

- 1 돔하우스 전경
- 2 도자체험프로그램
- 3 제1호 소장품 '구운 그림'



-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75-51
- 체험 예약 www.clayarch.org
- 문의 055-340-7000

2022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빛의 향연으로 만나는 유적

올가을에는 다양한 미디어·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미디어아트로 세계 유산과 만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오는 11월까지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유산을 즐길 수 있는 '2022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세계유산 미디어아트'는 해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개최지를 선정하는데, '수원화성'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부여 '부소산성', 공주 '공산성', 익산 '미륵사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창 '고인돌유적', 양산 '통도사', 함양 '남계서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올해 처음 선정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고창 고인돌유적(10.1.~29.)에서는 유적지 내에 봉인된 수호신과 청동검의 조각을 모아 국가 수호를 기도하는 이야기를 복합 영상기법으로 표현한 '황혼의 기적'이 펼쳐진다. 함양 남계서원(9.30.~10.30.)에서는 서원의 풍영루와 서원광장을 중심으로 서원과 선비정신 이야기를 담은 '빛의 노래, 서원을 밝히다'를 만날 수 있다. 함양 남계서원만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웅장하고 몰입감 높은 미디어아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㉞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주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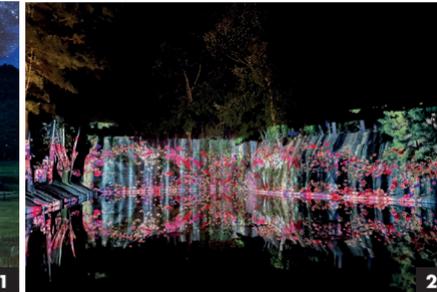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기간
수원화성	09.23.(금) - 10.23.(일)
백제역사유적지구	
- 부여 부소산성	09.16.(금) - 10.15.(토)
- 공주 공산성	09.17.(토) - 10.16.(일)
- 익산 미륵사지	09.03.(토) - 10.03.(월)
고창 고인돌유적	10.01.(토) - 10.29.(토)
양산 통도사	09.03.(토) - 10.03.(월)
함양 남계서원	09.30.(금) - 10.30.(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11.01.(화) - 11.30.(수)

•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누리집 chf.or.kr/visit

고창 고인돌유적

부여 삼층사 연지

함양 남계서원





걷기 좋게 단정한 전주한옥마을

걸어서 전주한옥마을 한 바퀴

전주한옥마을이 예스럽지 않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전주한옥마을은 1910년부터 전주 풍남동 일대에 조성된 도심 근대·한옥촌이기 때문이다. 700여 채의 한옥과 고려·조선·근대 역사를 보여주는 사적지와 韓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이 한데 어우러져, 즐길 거리가 풍성한 한옥마을로 성장했다. 전주한옥마을만 제대로 둘러보려 해도 하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글·사진_김혜영 여행작가

전주한옥마을의 정신적 지주, 경기전

오랜만에 전주한옥마을에 들렀더니, 어수선했던 거리가 말끔해졌다. 새로 단장한 골목길에 한옥 숙박 시설, 100여 개의 공예·음식·공연·문화 체험 시설, 박물관, 전시관, 찻집, 기념품가게가 가지런히 늘어섰다. 경기전, 전동성당, 오목대, 풍남문 등의 사적지와 신·구 한옥과 상가가 조화를 이루며 전주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듯 보였다. 전주한옥마을은 경기전이 있는 태조로를 기준으

로 골목들이 모세혈관처럼 연결돼 있다. 경기전 뒤쪽 오래된 골목길은 여전히 미로 같다. 길을 잃은 듯 헤매며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헤매더라도 전주한옥마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경기전은 꼭 들러야 할 곳이다.

경기전은 조선 태종이 태조 이성계의 어진(국보 제317호)을 모시기 위해 지은 건물로서 전주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태종이 전주에 경기전을 세운 이유는 조선 왕조의 성씨인 전주 이씨의 발상지이기

때문이다. 태조는 생전에 어진을 26점이나 그렸으나 전해오는 것은 단 한 점뿐이다. 나머지 25점은 조선 500년 역사 동안 전란을 수차례 겪으면서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단 한 점 남은 태조 어진

경기전 정문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홍살문을 만난다. 홍살문은 나쁜 기운을 막을 용도로 세운 문이므로 홍살문 안쪽은 신성한 공간이다. 외삼문과 내삼문을 통과해 가장 안쪽에 자리한 丁자 형태의 정전에 도착한다. 이 정전에 태조 어진이 모셔져 있는데, 이는 모사품이다. 진품은 최근 개관한 어진박물관의 수장고에 보관돼 있으며, 특별한 때 잠깐 공개된다고 한다. 어진 속 태조는 근엄한 표정으로 집무복인 청룡포와 익선관을 차려입었다. 키가 크고, 풍채가 좋으며 귀도 아주 컸다는 태조의 생전 모습을 상상해 본다.

경기전 가장 안쪽에 자리한 어진박물관으로 가는 길에 조선왕조실록과 국가 중요서적을 보관했던 전주사고 앞을 지난다. 전주사고 옆 대숲은 경기전에서 가장 운치 있는 포토존이다. 속이 빈 대나무는 불에 탈 때 요란한 소리를 내므로 옛날에는 화재경보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어진박물관에서 현존하는 영조·철종 어진, 사진을 보고 그린 고종·순종 어진, 표준 영정으로 지정된 세종·정조의 어진을 보고, 맞은편 수복청 뒷마루에 앉아 가을이 무르익는 소리를 듣는다. 수복청 전각 사이로 전동성당의 아름다운 종탑이 보인다.

전동성당 주춧돌이 된 풍남문

전동성당은 1791년 신유박해 때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가 처형된 곳에 세워진 성당이다. 프랑스 신부가 성당을 설계했으며, 천주교 신자들이 대거

처형됐던 풍남문 성벽을 헐어내 성당의 주춧돌로 삼았다. 전동성당의 건립 배경은 참혹하지만, 비잔틴풍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고풍스럽게 지어졌다. 전동성당의 상징물인 종탑 부분은 둥근 기둥에 12개의 창을 내고, 우산을 펼친 모양의 지붕을 얹었다. 양옆 두 개의 돔은 8각형 기둥에 8개의 창을 내어 건축미를 뽐낸다. 경기전과 전동성당이 태조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선 풍경은 볼 때마다 감동적이다.

전동성당 근처에 있는 풍남문은 서울로 치면 남대문과 같았다. 전주에는 원래 4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1907년 조선통감부 폐성령에 따라 동·서·북문이 철거되고, 풍남문만 남은 것. 풍남문 주위의

- 1 경기전 외삼문에서 내삼문과 정전을 바라본 풍경
- 2 경기전에서 제사를 지냈던 관리들의 처소인 수복청 너머로 전동성당이 보인다.
- 3 전주향교 대성전과 은행나무 고목들



성곽도 허물어지고 지금은 성문만 남아 로터리 역할을 하고 있다.

오목대에서 한벽당으로 이어지는 가을길

태조로 끝 언덕 위에 자리한 오목대는 태조가 왕이 되기 전 왜구를 소탕하고 개경으로 돌아가던 중 들러서 연회를 베풀었던 장소이다. 오목대 아래 산책로에 전주한옥마을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 포인트가 있다. 기와지붕들이 비 셀 틈 없이 맞대고 있는 모습이 장관이어서 발걸음을 떼기 어렵다.

오목대에서 내려와 전주천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걷다 보면 양사재와 전주향교, 전주전통문화원 수원, 한벽당까지 자연스레 이어진다. 전주향교는 고려 시대 향교로서 너른 마당에 수령 400년이나 된 은행나무 다섯 그루가 늙름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대성전 우측에 있는 은행나무는 수컷이 암컷으로 변해 은행이 열린다는 자웅 나무인데, 지금도 이 은행을 따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이 향교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던 풍경이 잊히지 않는다.

향교와 담장을 맞대고 있는 양사재는 전주향교의 부속건물로서 유생들을 교육했던 곳이다. 지금은 한옥숙박 시설로 사용한다. 규모는 작지만, 한옥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낮은 기왓장에 반질반질 광나는 마룻장, 까맣게 손때 낀 기둥, 나무를 때는 구들장이 옛날 시골집을 보는 것 같다.

양사재를 둘러보고 전주천생태탐방로를 따라 5분 정도 걸으면 전주천가 승암산 기슭을 깎아 세운 한벽당이 보인다. 마치 절벽에 누각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심스레 돌계단을 올라 한벽당에 앉으니,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땀을 씻어준다. ㉔



전주한옥마을 추천 코스

풍남문 ㉑ 전동성당 ㉒ 기전 ㉓ 오목대 ㉔ 양사재 ㉕ 전주향교 ㉖ 한벽당 ㉗ 한벽굴 ㉘ 자만벽화마을 ㉙ 이목대 ㉚ 오목대 입구



무대가 된 교실, 낭독극 수업

글·사진_한만수 인천대건고등학교 교사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학생들이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이 나는 즐겁다. 연극반 동아리를 25년째 지도하면서 지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예술이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롭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교사극단 활동을 통해 예술 활동이 지치고 메마른 삶을 얼마나 고양하는지 몸소 경험했다. 하기에 학생들도 예술적 체험을 통해 메마른 학교생활을 푸르게 가꾸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수행평가인 낭독극 수업을 소개한다.

낭독극 수업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모둠 활동 위주로 진행된다. 낭독극 실연을 통해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영역의 언어 능력 신장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협력 작업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무엇보다 난생처음 느껴 보는 무대 경험의 여운이 크다. 또한 종합 예술의 매력을 지닌 연극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예술 교과와 융합을 시도할 수 있고, 관객과 서로 호흡을 주고받으며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가 탁월하다.

12차시 프로젝트로 낭독극 수업을 매년 진행해 오고 있지만 실패는 없다. 역설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더 만족도 높은 수업이 되었다. 단편소설을 각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작품을 깊게 탐구한다. 자신의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 작품 속 인물을 깊게 만난다. 배경 화면과 포스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한다. 친구들과 호흡을 맞추며 불협화음을 줄여 나간다. 공연 발표를 지켜보면서 친구들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감탄한다.

낭독극 수업의 흐름

단계	개요	차시	활동 내용	비고
1	모듬 구성 역할 분담 작품 선정	1~2	• 낭독극 소개 • 모듬 구성, 역할 분담 • 단편소설 읽고 모듬별로 작품 선정	낭독극 소개 PPT 유튜브 영상 단편소설집
2	작품 탐구 대본 작업	3	• 소설을 깊고 넓게 만나기 위한 질문게임	활동지
		4	• 낭독극으로 발표할 4~5장면 선택하기	활동지
		5	• 개인별 각색하기	활동지
		6	• 모듬별 각색하기	노트북
3	포스터 제작	7	• 낭독극 공연 포스터 만들기 • 대본 완성하기	캔트지 매직펜
4	연습하기	8~9	• 역할 정하기, 연습하기 • 음악(음향) 선정, 배경 화면 제작, 소품 제작	대본 완성본 노트북
5	발표(공연)	10~11	• 낭독극 발표하기	조명, 촬영용 카메라 블루투스 스피커
6	소감 나누기	12	• 소감 나누기	활동지

낭독극 수업 첫 시간에 낭독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튜브에 낭독극을 검색하면 여러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인천대건고 학생들이 공연한 낭독극 ‘웃는 동안’(<https://www.youtube.com/watch?v=9PfWktP5t84>)을 추천한다.

학급당
4~6모듬으로 편성

한 모듬의 적정 인원은 4~6명이 적당하다. 각 모듬에 인원이 많으면 협업의 밀도가 떨어진다. 또한 무임 승차하거나 소외되는 학생이 생길 확률이 높다. 모듬 구성 방식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비뽑기로 정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모듬장(연출)
선정하기

모듬장은 낭독극 만들기 전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 협업을 이끌고 모듬원들 사이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까다로운 각색 작업을 책임져 최종 대본을 만들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사전에 알려주어 책임감 있는 학생이 연출을 맡도록 안내한다.

역할 분담

모듬장(연출)을 제외하고는 최종 대본이 완성된 후에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모든 학생이 무대에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 연출을 포함한 모든 학생은 배우이자 스태프다. 단, 낭독의 비중이 큰 해설자와 배우는 낭독에 좀 더 집중하고, 낭독의 비중이 적은 학생들은 스태프와 단역을 맡는다. 일반적으로 스태프는 음악(음향) 선곡, 배경 화면 및 포스터 제작, 소품 준비 등을 담당하면 된다. 작품에 따라 1인 다역도 가능하다.

작품 선정

가능하면 작품 선정은 교과와 연계한 작품으로 하되 시와 소설로 한정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문체가 좋고 흥미 있는 단편소설을 추천한다. 3년 동안 학생들과 낭독극 수업을 한 경험

으로 이루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소설을 추천한다. <운수 좋은 날>(현진건), <순가락아 구부러져라>(천명관), <웃는 동안>(윤성희), <유리방패>(김중혁), <회색 인간>(김동식), <꺼삐딴 리>(전광용), <우상의 눈물>(전상국) 등이 좋다.

완성도 높은 단편소설을 엮은 교재를 활용하면 효율적이다. 모듈별로 작품이 겹치지 않도록 작품을 선정하도록 안내하고 겹칠 경우 먼저 합의한 모듈에 우선권을 준다.

작품 탐구하기

각색하기에 앞서 작품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단편소설을 읽을 때 '질문으로 깊이 읽기'를 활용하여 소설 작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각색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된다. 특히, 작품의 주제나 주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대본 각색

낭독극의 길이는 10분 이내로 하고 장면은 4~6장면 정도로 한다. 재밋고 핵심적인 장면을 고르는 게 관건이다. 각각 자신이 맡은 장면을 희곡으로 각색한다. 각색을 처음 해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는 활동이 꼭 필요하다. 원작의 대사를 먼저 고른 후 적절한 해설로 이어갈 수 있으면 좋다.

포스터 제작하기

포스터를 제작하면 낭독극 발표에 대한 책임감과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스케치북, 쉐트지, A3 등을 통해 주요 문장이나 단어, 배경, 장면, 인물 등을 문자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학생들은 주로 PPT 화면을 선호한다.



개인별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낸 후, 모듈별 포스터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제목, 일시, 장소, 출연진, 간단한 작품 소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포스터 제작과 대본 수정으로 역할을 나누면 모듈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연습하기

- ① 교사는 낭독극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 ② 연출을 맡은 모듈장은 최종 완성본을 모듈원 수만큼 인쇄하여 준비한다.
- ③ 완성된 대본을 배역 상관없이 읽는다. 이때 연출자는 시간을 체크한다.
- ④ 배역(해설자 포함)과 스태프를 정한 후 실감 나게 읽는다.
- ⑤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합의한다. 어느 부분에서 끊고, 어느 부분에서 배경음악을 넣고, 시각적 이미지 등은 어디에서 보여줄 것인지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눈다.
- ⑥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 등 학교 일과 중 활용할 수 있는 자투리 시간에도 연습하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공연 발표

교실에서 발표할 경우 공연장처럼 무대를 만들고 반원형으로 책상, 의자를 배치한다. 교사는 모듈별 배경 화면과 음악 파일을 미리 점검하여 발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공연에 앞서 공연을 어떻게 시작하고 끝맺을지 서로 약속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연 시작과 끝은 정지 장면으로 한다든가, 다 같이 '레디 액션'을 외치면 공연이 시작된다든가 하는 사항을 미리 정해 놓는다.

작품 설명, 작가 소개, 줄거리, 인물 등을 공연 전후에 배치하여 관객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발표 시 관극 예절을 지켜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와 함께 축제 분위기를 형성한다. 촬영 담당자(모듈장 간 협조)를 두어 사진과 영상을 남기는 일도 중요하다.



소감 나누기

소감 나누기 활동지를 활용하여 기록과 평가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촬영 영상을 함께 보며 낭독극 만들기의 전 과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활동지의 주 내용은 '낭독극 만들기는 ()이다', '어려웠던 점이나 좋았던 점', '모듈원 상호 평가', '최우수 작품상', '우수 연기상' 등이다. 활동지를 통해 교사가 발견하지 못한, 아이들의 활약상을 발견할 수 있다.

낭독극 만들기는 [] 다.

- **딱풀이다.**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는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 **3D 프린팅이다.** 글 속에 머물던 작품을 입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롤(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이다.** 모듈원들과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요리다.** 주어진 원작 소설을 우리만의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마치 좋은 재료를 하나의 음식으로 만들어가는 요리 과정과 닮았기 때문이다.

- 2022학년도 1학기 인천대건고 고2 학생들 낭독극 수업 소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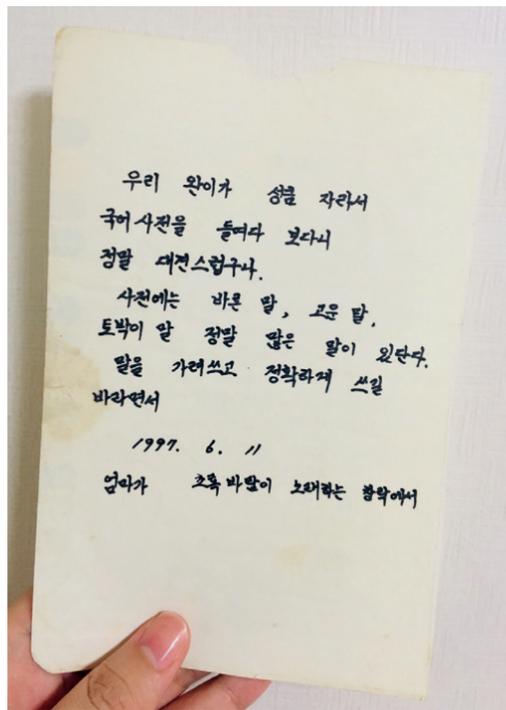
낭독극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선생님들께

전국교사연극모임에서 진행되는 연극 연수에 참여를 권하고 싶다. 낭독극 수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교사연극모임에서 펴낸 책, <학교에서 낭독극하기>(학교도서관 저널)와 전국국어교사모임 계간지인 <함께 여는 국어교육> 2021년 겨울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혼자보기 아까워서



Q 성완 창녕여자중학교 교사



우리말과 어머니의 가르침

어릴 적에 한글을 배우고 단어의 뜻을 궁금해할 그 무렵, 어머니께서는 제게 초등학교용 국어사전을 선물해 주시면서 사전 맨 앞장에 쪽지를 적어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우리말을 열심히 배우서 학생들에게 '바른말, 고운말, 토박이말'을 가르치는 국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겨 봅니다!

Q 박희목 점촌북초등학교 교장



생명 사랑 동물복지 수업

자연과 동물도 사람을 대하듯 섬세하게 바라보고 대해야 올바른 생명존중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박희목 교장 선생님입니다. 동물사랑 배움학교(농림축산식품부)를 운영하면서 동물복지 수업에서는 항상 아이 눈을 바라봅니다. 2학기 수업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교장 선생님의 교육철학을 떠올립니다.

Q 권숙현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교사



감동의 마지막 수업

2022년 1학기, 기간제 교사로서의 마지막 수업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3학년 3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른 문구들을 재치 있게 변형하여 축하해주었지요. 지나가 시던 교장 선생님께서 그날의 감동을 찍어주셨습니다!

Q 김도현 선주초등학교 교사



행복한 추억이 많은 아이가 안전하다

'꿀상'은 경북 선주초등학교 김도현 선생님과 김영재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운영하는 영상 제작 자율동아리입니다. 꿀상 아이들은 사랑스러운 어린이와 행복 가득한 다자녀 가족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넷 보단 다섯>을 제작했는데요. 이 영상이 경북 대구시와 매일신문이 주최한 '2022 어린이 사랑 다자녀 가족 사진·UCC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오디튜스 들님생선'이라는 교사영상제작팀으로 활동하는 김도현 선생님은 "행복한 추억이 많은 아이들은 항상 안전하다"라는 교육철학을 지닌 '멋진' 선생님이세요.

교육활동 중 완성된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 혼자 보기 아까운 학생들의 작품을 소개해 주세요. 작품 완성도가 높아서, 혹은 재치있어서 등등 어떤 이유에서든지 좋습니다! 학생들의 자작시, 그림 작품, 수행평가 결과물, 건축물, 스승의 날 아이들의 편지글, 학교 운동회 사진,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담긴 만화 컷과 웹툰 등 형식은 자유입니다. 작품과 함께 작품에 담긴 짤막한 사연도 함께 소개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 eduzine21@gmail.com

독자마당

<행복한 교육>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웹진(<http://happyedu.moe.go.kr>) 의견보내기에 리뷰를 남겨주시면
 채택된 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김규연 님(대전 동구)

<특별기획>을 읽고

'안전한 등굣길, 안전교육이 최고의 보약'을 읽고 지난해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무려 205만 명이나 된다는 걸 알게 됐다. 수치를 보니 놀라기만 하다. 더구나 어린이들은 위기 대처 능력과 순발력이 성인보다 떨어져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다. 대개 어린이들은 이면도로를 건너거나 자전거거나 인라인을 타다가 자동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자주 당한다. 학교 앞에 스쿨존을 만들고 교통법규를 강화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잘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은 여전하다.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막으려면 가정과 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생활화해야 한다. 차를 보면 우선 멈추기 등의 습관이 형성될 때 어린이가 교통사고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리라 믿는다.



박옥희 님(부산 사하구)

<꿈이 영그는 현장>을 읽고

'내가 그린 친환경 방학생활, 탄소중립을 함께 실천해요' 기사를 읽으니 우리 인간이 먹고 쓰고 버리는 폐기물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깨닫는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 온난화도 가속화돼 생태계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선다. 이제는 우리 모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한정된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버리는 쓰레기양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는 파괴되거나 사라질 위험에 있다고 본다. 어느 한 나라나 특정 연령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아이들에게도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이 모두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탄소제로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박순화 님(강원 동해시)

<일상의 심표>를 읽고

내 인생의 힐링 도시 부산을 소개한 여행 칼럼을 읽고 반가웠다.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기차 여행을 다녀오곤 하는데, 자주 가는 '감천문화마을' 외에 아이동 '비석문화마을', 영도 영선동 '흰여울문화마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어 또다시 떠나고 싶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웅기종기 다닥다닥 붙어있는 파스텔 톤의 집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리스 에게해의 산토리니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파란 도시 부산은 항상 유명하고 가던 곳만 가게 되는 곳인데 이렇게 좋은 문화마을이 소개되어 정말 기쁘다. 부산에 가본 지가 오래되어서 이참에 개성이 있는 '비석문화마을'과 '흰여울문화마을' 여행 계획을 세워보려고 한다.

EVENT	(주식농민 1610)87 p '크르
	<p>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OOOO 자율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개통했다. 이 평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역량(기능), 태도 등을 진단하여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이다.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해 평가에 참여한다.</p> <p>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 접속하거나 위의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p>



똑똑! 수학탐험대는 어떤 지원시스템인가요?

- 학습결과 진단 및 분석**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습결과 분석 및 시각화된 정보 제공
- 맞춤형 AI추천 학습**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이 개인별 맞춤형 학습 제공
- 미니게임**
게임 요소가 포함된 학습을 통해 즐겁게 수학 원리 이해
- 학습보상 - 나만의 마을 꾸미기**
달종 위기 동물 또는 해양 생물을 구출하는 탐험활동에서 얻은 학습점수로 '나만의 마을 꾸미기'를 하며 학습 흥미 유발

똑똑! 수학탐험대 어떻게 활용하나요?

- 학교에서 활용**
교과활동, 탐험활동
- 가정에서 활용**
디지털 도구, 인공지능 추천활동

똑똑! 수학탐험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 교과활동**
개념과 원리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 각 단원과 차시별로 디지털 학습 콘텐츠 제공
교과활동의 보충학습지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용 워크북 '함께학습지' 다운로드 가능
- 탐험활동**
미션을 수행하며 스스로 보충학습
- 자유활동**
다양한 미니게임을 통한 수학 학습

똑똑! 수학탐험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 인공지능 추천활동**
진단에 따른 개인별 학습
학생의 진단평가 결과와 탐험활동 이력기반, 개인 수준에 맞는 학습콘텐츠 추천
- 디지털 가상교구**
교과서의 교구를 통한 개념과 원리 습득
교과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학교구를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
- 평가**
학생의 학습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
차시평가·수시평가·단원평가·진단평가로 구성
평가 결과는 자동채점으로 바로 확인 가능